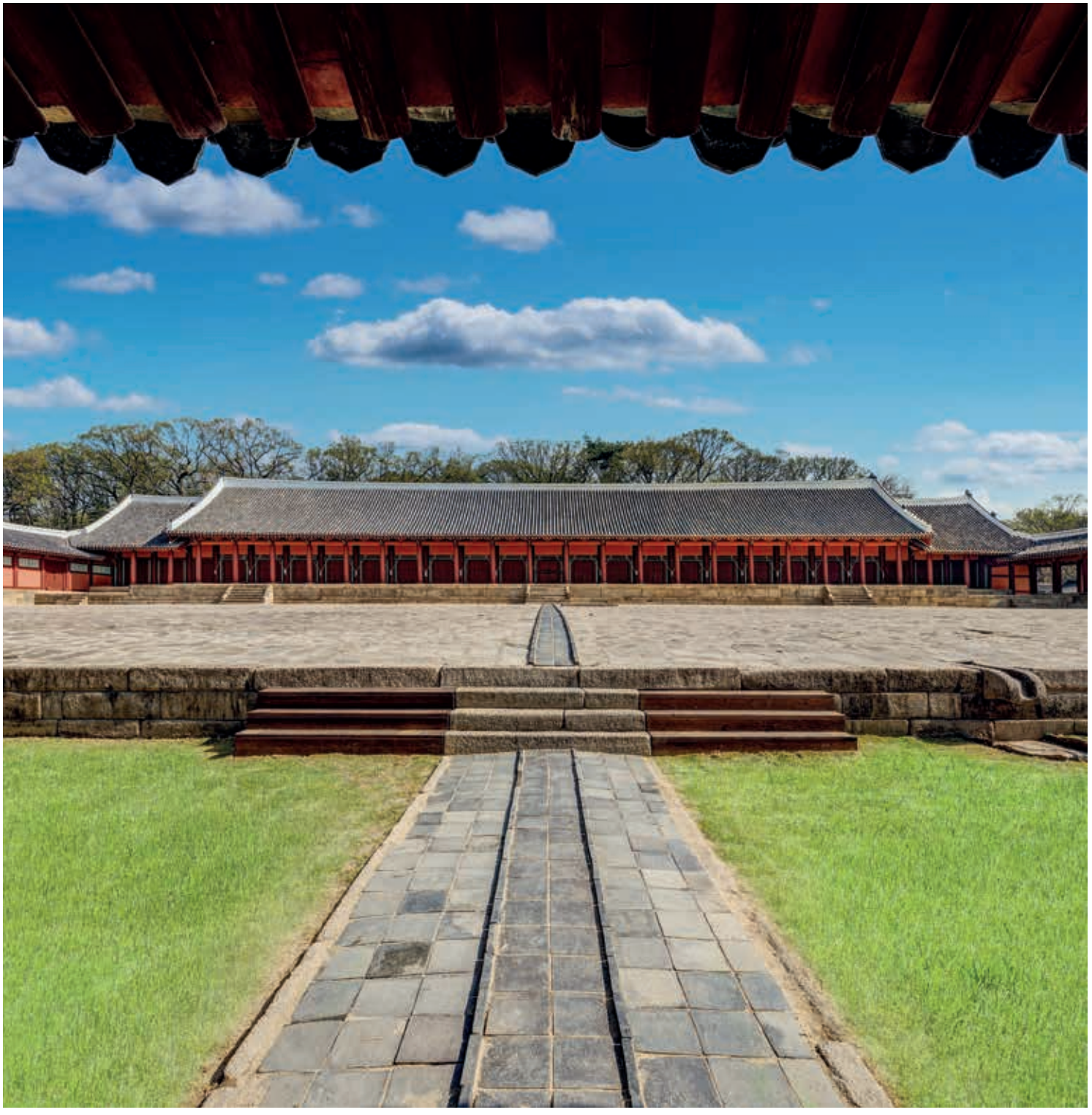
세계유산

제110호, 2026년 7월



ISSN 1020-4202

unesco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유네스코(파리)와 Publishing For Development Ltd.(런던)가 공동 발행하는 매거진입니다.

편집 총괄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편집 마틸다 사오리 마치무라
발행인 리처드 포스터, 피터 워런
제작 편집 카롤린 포르
교열 질 가스통 (영어), 팔로마 데 라 크루스 (프랑스어)
편집위원회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CCROM): 호세 루이스 페데르솔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레지나 두리겔로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팀 배드먼
유네스코 문화부 조티 호사그라하, 메이 샤에르, 마우로 로시, 히말출리 구룽, 베르타 데 산크리스토발, 무함마드 주마, 알레산드로 발사모, 줄리엣 비게라르, 오서영, 콜린 게고, 알레한드라 히메네스
유네스코 출판부 마티외 게벨
기고진 카린 오리오, 가이아 빈스, 레라토 모고아틀레
편집진 유네스코 문화부
프랑스 파리 퐁트누아가 7번지, 75007 (7, Place de Fontenoy, 75007 Paris, France)
전화 +33 1 45 68 14 22
출판사 Advertisements, production Publishing For Development Ltd,
영국 런던 그레이터런던 스트랜드 231–232, WC2R 1DA (231–232 Strand, London, Greater London, WC2R 1DA United Kingdom)
전화: +44 2032 866610
이메일: peter@worldheritagereview.com

구입처: https://shop.unesco.org

참여 필진: 안동시, 화순군,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기진석, 김동엽, 김현용, 도미솔, 박관우, 박미현, 박유정, 박지영, 승효상, 유대호, 이민아, 이주영, 장진혁, 전용문, 차윤정, 홍인수

본 간행물에 수록된 사실의 선택과 기술, 그리고 여기에 개진된 의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이는 반드시 유네스코의 공식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유네스코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본 발간물 전반에 사용된 명칭 표기와 자료의 기술 방식은 특정 국가, 영토, 도시, 지역 및 해당 당국의 법적 지위나 국경 또는 경계선의 획정에 관한 유네스코 측의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함축하지 않습니다.

목차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 (대한민국)

4
머리말
칼레드 알-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7
발간사

8
개최국 축사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병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

10
포트폴리오
문화와 자연의 조화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82
심층탐구
문화경관, 자연의 품

102
특집기사
지하의 신비와 지상의 치유
세계유산의 발견과 회복 이야기

120
인터뷰
건축가 승효상
이 땅의 기억을 보존하고 전승하다

132
특집기사
함께, 더 단단하게:
세계유산에서 품다

151
아카이브
세계유산리뷰 제7호
1998년 1월

머리말

칼레드 알-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 UNESCO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올해, 전 세계는 정치적, 기술적, 환경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부산에서 열리는 제 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의 유산을 보존한다는 공동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유산이라는 개념을 넘어 모두를 위해 대화,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을 증진하는 유산이라는 새로운 공동의 목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대한민국에는, 유산과 인간 사회와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연 경관과 문화적 표현이 풍부합니다. 「한국의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2,15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창덕궁」은 인간이 주변 환경과 맺은 조화로운 관계에 뿌리를 둔 건축 전통의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에 동력을 제공합니다. K-팝을 비롯한 한국 음악과 영화는 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뒷받침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세계와 공유할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두의 자부심과 희망, 그리고 기회의 원천입니다. 지금까지 196개국이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했고, 이 중 170개국이 1,248건의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직 등재된 유산이 없는 26개 회원국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이들 26개국 중 일부가 제출한 유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용과 평등의 정신으로 이들을 지지하고, 세계유산목록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압력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 보존이라는 문제는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 전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도전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등재된 유산 하나하나는 저마다 고유한 이야기를 전하지만, 이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보편적인 서사를 이룹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성 속에서 공동의 유산을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무를 다하는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대화, 상호 이해,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시작을 뜻합니다.

오른쪽
도산서원

© (재)세계유산 부산 국제협력센터





발간사

전 세계적으로 유산은 역사를 토대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을 보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과거가 남긴 발자취이자 미래를 위한 자원인 유산은 공동체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회복탄력성과 창의성 그리고 전승 정신을 상징합니다. 유네스코에게 주어진 사명의 핵심을 이루는, 유산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제 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올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 때에 더 큰 무게감을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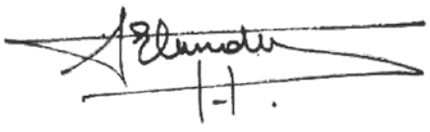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경험을 보면 유산이 어떻게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면서도 정체성의 기초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 십 년간 대한민국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면서도 혁신을 도입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역량 강화와 지식 공유에 기여하며,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다수에 이익이 되는 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은 기억, 정체성, 생태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얼마만큼 심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석굴암·불국사」에서부터 「한국의 서원」 그리고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은 자연과 문화 그리고 지식의 소통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유산을 보여줍니다. 주변경관과의 조화에 기반한 한국 전통 건축은 교류, 사색, 만남의 공간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 건축가 승효상은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연결된 이야기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산을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 있는 발자취로 여기는 유네스코의 비전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이 장소들은 문화와 정신의 공존을 보여주는 곳이며, 그와 같은 유산을 적절히 보존하는 데 있어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번 호에서 우리는 고령자, 장애인, 신경다양인(neurodivergent people) 등의 세계유산 방문 경험을 돕기 위한 노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포용성 증진 활동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보편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것을 보면, 세계유산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계유산은 인류의 가치 전승에 기여하고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응집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unesco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세계유산센터 센터장

왼쪽
한국의 갯벌

©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개최국 축사


© 국가유산청

허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장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불과 76년 전, 유네스코에 가입한지 11일 만에 한국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대표적인 수혜국이었습니다.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는 기여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참가하는 당사국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 가속화되는 도시화, 무력 분쟁까지 단일한 위협이 아닌 여러 위기가 얽힌 복합위기(polycrisis) 상황입니다. 이에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복합위기에 놓인 세계유산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20개 위원국과 함께 국경과 분야를 초월한 연대와 협력(collaboration)의 정신을 일깨우며, 세계유산협약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 비전과 실천적 원칙을 정립하는 과정에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원회 기간 동안 참가자분들은 대한민국과 부산이 간직한 유산과 평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K-헤리티지 하우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과 국경을 넘어 세계를 하나로 잇는 K-컬처를 체험하며 한국을 가슴에 새기고,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눈부신 회복을 이뤄낸 부산이 지닌 평화의 유산과 도시에 새겨진 역사적 증언을 톺아보는 과정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공동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복합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산이 전하는 고귀한 이야기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며, 당사국과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로운 동행을 기대합니다.

문화를 잇는 가교로서의 세계유산


© 대한민국 문화재청

이병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

1988년 한국이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는 부산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연대 논의를 주도하는 도시로서 세계유산의 과제를 논의하기에 의미있는 장소입니다.

세계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인류 전체의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세계유산은 서로 다른 문화 간 가교로서, 인류가 공유하는 기억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토대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72년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가진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170국의 1,248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인공지능을 위시한 급격한 기술 변화(technology change)를 포함한 이른바 '다중 도전(multiple challenges)'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과 새로운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금까지 여러 도전 요소를 토의하는 공론장으로서 역할해왔습니다. 저는 제48차 세계유산위가 협력(collaboration)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연대(solidarity)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와 자연의 조화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오른쪽
창덕궁 부용지 (대한민국)

© 국가유산청







© 허자권

해인사 장경판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1995년 등재

합천 가야산에 위치한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고려 대장경판을 봉안하고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1995년에 세계유산으로,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200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각각 등재되었다.

팔만대장경은 1236년부터 1251년까지 고려시대 16년에 걸쳐 조성된 불교 경전의 집대성으로, 총 1,514경 81,352판 6,80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고려시대 국가를 중심으로 사찰 수도승과 민간 모두가 참여한 대규모 국가사업이었다. 각 판의 규격은 세로 약 24 센티미터, 가로 약 70 센티미터 내외이며, 한 판에는 평균 23행, 행당 14자씩 정연하게 판각되어 있다.

판각은 다수의 장인이 참여하였으나, 서체는 구양순체로 통일되어 마치 한 사람이 작업한 것과 같은 일관성을 자랑한다. 이는 많은 경전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과정부터, 정서(淨書)·교정·판각에 이르는 엄격한 분업 체계 속에서 조판하였음을 보여준다.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오탈자가 거의 없어 교감(校勘) 수준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수세기에 걸쳐도 팔만대장경을 완벽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 장경판전의 자연환기 시스템은 온·습도 조절에 최적화되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최적의 건물임이 입증되었다. 벽면의 격자형 창문은 크기를 달리하여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며, 판가(板架)와 경판의 배치는 자연 대류를 극대화하도록 배치되었다. 또한 바닥을 석회, 숯, 소금 다짐으로 마무리하여 습도 조절과 충해 방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수세기에 걸쳐도 팔만대장경을 완벽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

해인사는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인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해인사와 불교 문화를 배우고, 장경판전 관람을 통해 팔만대장경 보존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며, 직접 인경(印經)도 체험하게 된다.

더불어 전통 판각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해인사는 최근 장경도감 판각학교를 설립하여 팔만대장경 판각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스님과 일반인 약 500여 명에 가까운 교육생들이 참여하며, 판각 기술의 전승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전쪽
장경판전 외부

오른쪽
팔만대장경 판각 교육

다음쪽
장경판전 내부

ⓒ 해인사







© 하지권



종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1995년 등재

서울시 중심부에 위치한 종묘(宗廟)는 동아시아의 유교적 왕실 제례 건축으로서 공간계획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그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 14세기 말에 창건되어 유지되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7세기 초에 중건하였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증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종묘는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이다. 왕이 문무백관(文武百官)과 함께 정기적으로 조상을 위한 제사에 참여한 공간으로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한다. 종묘제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속하며, 왕실에 있어 지대한 중요성을 지녔다.

중심 건물인 종묘 정전(宗廟 正殿)은 19개의 신실을 나란히 배치한 길고 수평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건물 전면에 펼쳐진 석조 월대는 왕실 조상 제례를 관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왕실의 신주를 봉안하는 공간과 관련 의례가 거행되는 공간이 긴밀하게 통합된 구성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건축물로 꼽힌다.

모든 건물과 시설물은 조선 시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종묘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심과 분리되어 있다. 목조건물의 특성상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공사 또한 관련 문헌과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 법식에 맞는 재료와 기술을 이용해 공인된 장인들이 진행한다.

종묘는 제향 공간과 제향을 지원하는 부속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은 유교 문화의 오랜 정신적 전통인 조상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왕실 주도하에 엄격한 형식에 따라 지어졌다. 종묘제례 혹은 종묘대제(宗廟大祭, 가장 큰 제사라는 뜻)와 종묘제례악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유산로서 체계적으로 전승, 보호되고 있다.

종묘대제는 20세기 초반에 단절되었다가 1969년 복원되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유교의 규범를 엄격히 지켜 웅장하고 엄숙한 의식으로 거행된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음악, 무용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행사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현재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건물은 유교 문화의 오랜 정신적 전통인 조상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왕실 주도하에 엄격한 형식에 따라 지어졌다.

최근 국가유산청은 종묘대제 행사와 연계하여 11일간의 '종묘주간'을 지정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종묘제례악의 웅장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종묘제례악 야간 공연'을 비롯해, 제례 악기를 직접 연주해보거나 왕실 제례 상차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왼쪽
종묘 행각

다음쪽
종묘대제봉행

© Ko Hon Chiu Vincent





석굴암과 불국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1995년 등재

석굴암과 불국사는 8세기 중엽 신라(기원전 57년부터 기원후 935년)의 수도 서라벌의 동쪽 토함산에 위치해있다. 재상 김대성에 의해 왕실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여 창건되었다.

토함산의 정상 부근, 동해를 바라보는 위치에 건립된 석굴암은 현재 경주시에 있으며 신라의 기술적·예술적 역량이 종합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적 문화유산이다. 석굴암은 건축과 조각을 일체화를 통해 불교적 세계관을 구현한 독창적 사례이다.

이 불교 성소는 접착제 없이 다듬은 화강암 부재를 짜맞추어 축조되었으며, 중앙의 돔형 원형 주실, 직사각형의 전실, 그리고 이 두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루어져 있다. 주실 중앙의 거대한 불좌상을 중심으로 벽면에는 보살과 제자, 천신들이 섬세한 부조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불국사는 토함산의 서쪽 기슭에 건립 되었으며, 이름 그대로 신라인들이 생각한 '부처의 나라'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사원이다.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을 봉안한 전각들이 고대의 회랑 구조로 질서정연하게 구획되어 있다. 대웅전 앞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두 석탑이 조화를 이루며, 각각 완벽한 비례미와 창의적인 역동성을 보여준다. 대석단은 자연석과 인공으로 다듬은 석재가 안정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아치 기술이 적용된 청운교와 백운교는 본 건물인 대웅전으로 이어진다. 이는 신라인들이 돌을 사용한 건축에 매우 능숙하였고,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심미안 또한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유산 석굴암과 불국사는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각종 홍보자료에 대표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규모의 외교 행사에 한국의 문화유산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 되어왔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공식 행사들이 불국사를 배경으로 펼쳐진 바 있다.

> 신라의 기술적·예술적 역량이 종합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적 문화유산이다.

특별히 2025년은 석굴암과 불국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여 신라의 기술적·예술적 역량이 종합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적 문화유산이다. 세계유산축전 때는 평상시에는 접근이 제한된 청운교·백운교를 한시적으로 개방하였다. 이러한 공개 행사는 신라시대 건축물과 보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오른쪽
석굴암

다음쪽
불국사

© 차주영







© 차주영



창덕궁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1997년 등재

창덕궁은 현재 서울 도심에 위치한 조선시대(1392년부터 1910년) 궁궐로, 자연 지형을 존중한 전통 조경과 궁궐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 궁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세계유산이다.

15세기 초에 정궁인 경복궁 동쪽에 이궁으로 조성되었다. 창덕궁이 자리한 곳은 언덕 지형으로 평탄한 곳이 많지 않기에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이러한 불규칙한 지형지세를 최대한 활용했다. 궁궐 건물을 경내 남쪽에 배치하고, 북쪽 넓은 구릉에는 비원이라고도 불리는 후원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남북으로 구분된 이원적 구조를 형성하며, 동아시아 궁궐 건축의 전형적인 격식에서 벗어나 주변 자연 환경과 뛰어난 조화를 이루는 특색을 지녔다.

창덕궁은 조선 전기의 약 200년 동안 왕의 통치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나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이후 17세기 초 소실된 도성 내 궁궐 중 가장 먼저 중건되며 이후 약 250년 동안 조선왕조의 정궁 역할을 했다. 창덕궁의 공간 구성과 건축물의 배치, 원림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형식과 유교 예제가 요구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창덕궁은 왕과 백성들이 소통하는 돈화문, 조정의 관료들이 왕을 보좌하며 업무를 본 외조, 왕이 신하를 만나며 국정을 수행한 치조, 왕과 가족들이 취침하는 침조, 왕이 휴식을 취하는 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덕궁의 건물과 후원의 원림은 조선 후기 축조 당시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궁궐의 지형과 경관 또한 원래의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다. 노후된 시설의 복원과 수리는 공인된 장인들이 관련 문헌과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이뤄지고 있다.

자연 지형을 존중한 전통조경과 궁궐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 궁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세계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공간을 보다 즐겁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여름철 특별 프로그램 '궁피서 가자'를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궐내각사 권역에서 위치한 옛 궁중 의료기관인 약방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조선 왕실에서도 마셨던 오미자차를 냉차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반과 방석, 돗자리 등도 활용되어 궁궐 공간의 전통적 정취를 한층 더 살리고 있다.

왼쪽
진작례

다음쪽
인정전

© 국가유산청 창덕궁관리소





© 국가유산청

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1997년 등재

화성은 조선시대 왕 정조가 1794년부터 1796년에 걸쳐 축조한 성곽이며, 길이는 5.4 킬로미터, 높이는 4에서 6 미터로 약 130 헥타르 규모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조선(1392년-1910년) 제22대 왕이었던 정조는 능이 인근으로 이장된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효심을 기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

오늘날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화성은 18세기 발전된 동서양의 과학 기술이 반영된 군사 건축물이다. 또한 군사 뿐만 아니라 행정,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혁신적인 신도시의 모습을 구현한다.

1950년 초 한국전쟁 중 성곽 일부 구역이 손상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보수 및 복원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세심한 노력이 기울여졌으며, 특히 당시 공사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2007년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성벽, 4대문, 각종 방어용 시설 등 중요 부분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세계 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구조적 완전성을 지켜냈다.

수원화성문화제, 1795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대표 지역축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00만명 이상이 화성을 방문하고 있다.

세계유산 화성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은 화성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핵심 주체로서 참여한다. 수원시는 국내 최초로 2024년부터 '수원화성 마을장인'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시민을 국가유산 수리기능자인 한식미장공으로 육성하여 화성의 경미한 보수를 맡기고자 한다. 올해 4월,

화성은 18세기 발전된 동서양의 과학 기술이 반영된 군사 건축물이다.

교육을 받은 15명의 지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시험을 보았고 최종 6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성곽 내 임시 왕궁인 화성행궁이 있는 행궁동 주민들은 '행궁마을협동조합'을 구성했다. 이들은 화성행궁 야간 체험 프로그램인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직접 운영하며,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 중이다. 세계유산 화성은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무형적 가치를 부각시키며,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세계유산'으로 거듭나고 있다.

오른쪽
동북포루

다음쪽
정조대왕능행차 재현행렬(2025년)

© 수원시






조 대 왕
청 연 군 주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00년 등재

고인돌은 선사시대에 조성된 돌무덤으로, 당시 사회의 조직력과 노동력 동원을 용이케한 사회구조를 보여주는 거석문화의 일종이다. 그중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형식의 다양성과 밀집도, 우수한 보존 상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선사시대 동아시아 고인돌 문화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준다. 고창은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밀집해 시간에 따른 고인돌 양식의 변화를 살필 수 있고, 화순은 채석장과 운반 경로가 남아 있어 축조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강화는 산 능선과 정상에 분포하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양식이 확인되어 초기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세 유적은 상호 보완적으로 고인돌 문화의 형성과 변화, 변형과 축조 기술의 발전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세 유적은 고인돌 문화의 형성과 변화, 변형과 축조 기술의 발전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세계 각지의 거석 유적이 대체로 단일 유형에 집중된 것과 달리, 본 유산은 고인돌 구조에도 드러나듯 연속적인 문화적 변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다. 고인돌은 단순한 매장 관습을 넘어, 당시 공동체의 조직력과 협업, 그리고 사회 질서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세 유적지에서는 토기·석기 제작과 농경·사냥 체험 등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고창 고인돌 유적에서는 국내 유일 고인돌 전문박물관인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와 교육·행사를 운영한다. 또한 500여 기의 고인돌을 살펴볼 수 있는 탐방열차,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체험하는 죽림선사마을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다. 화순 고인돌 유적 방문객들은 재현한 청동기시대 주거공간을 간접 체험하고, 발굴 체험이나 VR(가상현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거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화순 지역에서는 고인돌 유적을 중심으로 계절별 축제와 공동체 행사가 열려, 주민과 관광객이 선사시대 석조 무덤을 보다 폭 넓게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공동체의 소속감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왼쪽
고창 도산리 지석묘

다음쪽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 고창군





경주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00년 등재

현재 경주, 과거 신라시대(기원전 57년부터 기원후 935년)의 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경주역사유적지구는 5개의 지구로 나뉜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은 천년에 이르며 장성한 신라 문화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남산지구에는 불상, 석탑, 절터를 비롯하여,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전해오는 나정 등 수많은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 월성지구는 왕궁터인 월성 혹은 반월성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 월지 연못이 있는 동궁,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시설 첨성대 등이 있다.

대릉원지구는 신라 왕을 비롯한 왕족, 귀족의 대형 무덤이 있는 곳이다. 몇몇 고분의 발굴조사에서 6점의 금관, 천마도, 금 공예품, 유리제품 등 귀중한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황룡사지구에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목탑인 황룡사구층목탑이 있었던 황룡사지가 있다. 출토된 수많은 유물은 당시 웅장했던 대사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신라 문화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모전석탑이 있는 분황사와 지그재그(ㄹ) 모양의 독특한 수로가 있는 구황동 원지가 있다.

산성지구에는 명활산에 위치한 명활성이 있다. 신라왕경을 지키기 위해 쌓았으며 둘레는 약 6 킬로미터이다. 축조연대는 불명확하나 삼국사기에 405년에 왜병이 명활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5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성임을 알 수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 곳곳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크고 작은 공연, 사진전,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경주남산연구소는 남산지구 답사 정보를 제공하고 주간 및 야간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월성지구에서 현장해설 프로그램을, 대릉원지구 내 쪽샘지구와 숭문대에서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런 배경에는 경주시와 지역공동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이 있다.

발견된 유물과 유적은 천년에 이르며 장성한 신라 문화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오른쪽
첨성대

다음쪽
동궁과 월지의 야경

© 국가유산청







© Photo Hedge/ Shutterstock.com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07년 등재

제주도는 약 180만 년 전부터 수천 년 전 까지 활발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이다. 섬 전체에 독특하고 다양한 화산지형들이 잘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여 종의 식물과 5,0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고이다. 이는 제주가 가진 최고의 환경 자산으로,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대한한국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세계유산지구의 면적은 총 18,846 헥타르로 제주 전체 면적의 약 10%에 해당한다.

본 유산에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포함되어 있다. 지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제주도 중심에 있는 한라산에는 고도별로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한다. 산지에는 구상나무 군락 등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경관을 자랑한다.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성산일출봉은 해수와 만난 마그마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형성된 수성화산체로, 커다란 요새와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극적인 아름다움과 높은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약 14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만든 지하 동굴군이다. 형성 당시의 구조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다양한 석회 장식들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암동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은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 공동체의 주인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협력적 관리 모델을 구축해 왔다. 유산 인접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세계자연유산마을 협의체는 행정과 지역 공동체 간 소통 창구로 기능하며, 보전과 활용 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섬 전체에 독특하고 다양한 화산지형들이 잘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여 종의 식물과 5,0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고이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거문오름 트레킹 행사, 성산일출축제, 세계유산 축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을 세계자연유산 해설사로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지식을 활용하여 방문객 이해를 돕고 지역 소득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더불어 탐방로 관리, 환경 모니터링, 방문객 수용력 관리 등에도 지역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왼쪽
성산일출봉

다음쪽
한라산 백록담

© 기전석



© 제주특별자치도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09년 등재

조선왕릉은 대한민국에 전역에 걸쳐 18개 지역에 위치한 40기의 조선시대 왕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속유산이다. 왕릉의 자리는 풍수지리의 원리에 의해 신중하게 정해졌고, 오늘날에도 시행되는 조상 숭배 의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세속적인 구역에서부터 경건한 구역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배치, 독특한 전각 및 특수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조선왕릉은 조선왕조(1392년–1910년)의 왕실 전통과 역사를 잘 보여준다. 매장 공간과 더불어 왕릉에는 의례 공간과 입구가 포함되며, 봉분 외에도 정자각, 비각, 수라간, 수복방, 홍살문, 재실 등 다양한 부속 건축물이 갖추어져 있다.

18개 왕릉군은 대체로 조선시대 본래의 기능과 경건한 분위기를 잘 유지해 왔으며, 특히 도시화가 덜 진전된 곳의 유적은 더욱 그렇다. 조선왕릉은 몇 개의 입구들만 바뀌었을 뿐 그 형태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왕릉 유적은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보존관리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왕릉의 건축 요소, 배치는 물론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원래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엄격한 법률로 왕릉 주변 지역 안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왕릉의 탁월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구역 내에서 추진되는 모든 개발 사업은 높이 및 층수 제한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행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제는 18개 권역 40기의 모든 왕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건축물의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조선왕릉의 가치와 의미는 단순한 물질적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유산 조선왕릉 축전 등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개막제를 지역별로 순환 유치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융복합 공연 콘텐츠와 더불어, 왕릉 체험, 자연 탐방, 음악 공연 및 강연 등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왕의 능행을 재구성하여 재현한 '조선 능행'은 조선시대 의례적 전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며,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 이야기'는 왕릉을 관리하던 참봉의 일상을 인형극과 퀴즈 등으로 재미있게 풀어내었다. 방문객은 능주를 중심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특별한 경험으로 풀어낸 야간 투어도 할 수 있다. 신규 기획 전시 프로그램 '왕릉 제향 전시관'은 왕릉 제향의 제물을 증강현실 기술로 재현한다.

세속적인 구역에서부터 경건한 구역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배치, 독특한 전각 및 특수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조선왕릉은 조선왕조의 왕실 전통과 역사를 잘 보여준다.

오른쪽
건월릉과 능침

다음쪽
서오릉 명릉

© 국가유산청 저작권 보호







© 국가유산청 국립유적보부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10년 등재

하회와 양동마을은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한 조선시대(1392년부터 1910년) 두 개의 대표적 씨족 마을이다. 두 마을은 산을 뒤에 두고 강을 마주하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조성되었다. 가옥은 여름에 고온다습하고 겨울에 저온건조한 기후에 적합하며, 유교 예법에 입각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 두 마을에는 양반 씨족마을의 구성요소인 종가, 살림집, 정사와 정자, 그리고 주변의 농경지와 자연경관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러한 유형 유산은 이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많은 의례, 놀이, 저작, 예술품 등 수많은 무형 유산들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 가문이 600여 년간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온 곳으로,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중시한 전통 한국 마을의 전형이다. 이 역사적 마을은 낙동강 물줄기가 마을을 감싸안는 독특한 '물돌이' 지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마을 내부에는 양반들이 거주하던 기와집과 서민들의 초가집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정사와 서원 등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조선시대 종가를 중심으로 한 고택과 다른 건축물들이 잘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의례와 행사 역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 특히 별신굿탈놀이로 알려진 지역 탈춤이 대표적이다.

경주 양동마을은 설창산(雪蒼山)의 줄기가 마을을 감싸안은 모습이며 가옥들이 네 능선과 골짜기를 따라 자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반가옥은 높은 곳에 입지하였으나, 양동의 종택(宗宅)들은 능선의 가장 높은 마루를 피하고 그 바로 아래에 자리 잡았다. 가옥들은 대한민국 영남 지방의 전형적인 평면 구성인 'ㅁ'자 형태를 취한다. 가장이 거처하는 사랑채와 여성 생활공간인 안채, 그리고 하인들의 거처인 행랑채 등이 유교 질서와 규범에 맞도록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 유산은 이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많은 의례, 놀이, 저작, 예술품 등 수많은 무형 유산들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위계적이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산과 들, 강이 어우러진 자연경관과 합치되어 한국 전통 마을의 생활 경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회와 양동마을은 전통 건축을 넘어 실제 주민이 거주하며 삶을 영위하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하회마을은 탈놀이 공연, 전통 예절 및 한옥 체험 등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동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대보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도 줄다리기와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에 참여한다.

왼쪽
양동의 초가

다음쪽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단

©양동마을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14년 등재

남한산성은 오래된 산성 터를 바탕으로 17세기 대대적인 정비와 축성을 거치며 자리잡은 요새이다. 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성곽과 행궁, 군사 시설, 마을이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요새 도시로 발전했다. 불교 승려들(승군)에 의해 축성되고 방어된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중요한 행정 및 군사 기능을 수행했다.

남한산성은 서양으로부터 화약 무기가 도입되며 나타난 축성기술이 당대 방어 군사공학과 어떻게 만나 발전했는지 잘 보여준다. 남한산성은 한국의 산악 지형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화기에 대한 방어를 용이하게 하였다. 조선 시대 국난 시에는 임금과 조정이 피신해 국가의 행정을 이어가던 '임시 수도'로 기능하기도 했다.

남한산성은 17세기 동아시아 축성술의 발달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됐다. 남한산성은 '문화유산법'과 '자연공원법'에 따라 보존되며,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속적인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남한산성은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 활기를 이어간다. 성곽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프로그램', '숲속의 산성도시 명소화 사업'을 통해 성곽 모형 쌓기, 전통 복식 체험, 전통 부채 만들기, 증강현실과 가상 현실 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남한산성역사문화관에서는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여 남한산성과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해맞이행사, 매해 첫 보름달을 기념하는 영월제, 숭렬전·현절사 제향 등의 전통문화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불교 승려들(승군)에 의해 축성되고 방어된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중요한 행정 및 군사 기능을 수행했다.

지방정부는 주민 주도형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의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른쪽
남한산성 행궁

다음쪽
남한산성 연주봉

© 경기도청 세계유산센터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15년 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는 한반도에 자리잡은 고대 삼국 중 하나인 백제시대(기원전 18년부터 기원후 660년) 후기와 연관된 8개 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선진 기술과 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지역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일본과 동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며 국제적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등재된 8개 유적은 백제 후기(기원후 475년부터 660년)의 수도이자 현재 대한민국 중서부에 위치한 공주·부여·익산 세 지역에 분포해 있다. 공주에는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부여에는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왕릉원, 나성이, 익산에는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가 위치해 있다.

또한, 고대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활발한 교류와 그에 따른 정교한 건축기술, 불교 및 관련 문화의 확산을 증언한다. 동시에 백제의 정치·종교·예술적 전통을 보여주는 뛰어난 증거가 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진정성과 완전성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역사연구, 고고학 조사 및 보존 기술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2016년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유산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 결과는 유산 전체의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된다. 또한 주민들은 유산 해설, 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접근성도 확대되고 있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콘텐츠는 방문객이 고고학 유적으로 남아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 어디서나 이 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보존과 지역 경제발전, 문화 자긍심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한편, 유산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되도록 지속가능한 관리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고대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왼쪽
공산성

다음쪽
정림사지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 사)한국문화재재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18년 등재

'산사(山寺)'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산속의 사찰을 의미하며, 한국 사찰이 자연 경관과의 조화를 중요시함을 잘 드러낸다. 7세기부터 9세기에 지어진 산사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총 7곳의 사찰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 7곳의 산사는 창건된 이후 현재까지 본 위치에서 불교의 정신적 중심지로서 영향력과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산사에서는 승려들이 수행과 사찰 생활을 이어감과 동시에 일반 불교 신자들의 신앙 활동도 이루어진다. 다른 불교 사찰들과 구분되는 산사의 고유한 가치는 입지적 특성과 공간 구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등재된 산사는 완만한 산기슭에 자리 잡아 계곡과 하천으로 자연스럽게 경계를 삼으며, 주변의 자연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산사 7곳은 중창과 중수를 거치며 유지되어 현재의 구조를 완성하였다. 특히 16세기 후반 임진왜란 이후로는 여러 가람배치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우선 주불전과 누각, 부속 불전들로 둘러싸인 마당이 중심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사찰 경내는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스님들의 수행 공간, 일상적 거주 공간, 그리고 승가와 재가가 함께하는 신앙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사찰의 여러 석조 및 목조 건축물들이 수백년에 걸친 그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며 현전하는 유형 및 무형유산이 풍부하게 축적된 보고로 남아있다. 사찰들은 과거를 보존하면서도 현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창조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사찰 승려들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일상 의례와 강학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불교의 전통에 기초한 공통의 의례가 행해지는 한편, 각 사찰의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특징을 반영한 의례도 별도로 행해진다.

사찰들은 과거를
보존하면서도 현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창조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 및 고유한 의례에는 승가뿐 아니라 불교 신자 모두가 참여한다. 더불어 여름과 겨울, 두 번에 걸쳐 수행하는 '안거(安居)' 전통 역시 전승되고 있다.

한편 등재된 7곳의 산사는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불교 역사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 음악회, 조명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들이 소방 기관 등과 협력하여 안전한 예방 활동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오른쪽
법주사 팔상전

다음쪽
선암사 대웅전

© 대한불교조계종




大雄殿
不離祇園大道場
莫謂慈容難得見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19년 등재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를 중심으로 성립한 사립 성리학 교육기관 9개소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중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 걸쳐 위치하는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이념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지역적 맥락 속에 정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중국에서 전래된 성리학은 곧 조선에 자리잡았고, 조선의 여건 속에서 사회적 기능과 건축 형식에 변화를 거치며 정착하였다. 그 결과 학문과 수양, 공동체 질서정립이 결합된 독자적 사회 모델이 형성되었다.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배산임수의 지형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입지하였으며, 건축물과 주변 경관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 강학 공간과 사당 영역은 위계와 기능에 따라 분리되면서도 하나의 질서 있는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원은 건축과 공간 구성면에서도 성리학적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수양과 사회 질서를 중시한 성리학 사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서원은 강학과 제향, 교류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이기도 하다. 지방 사림이 주도한 자율적 교육기관이자, 선현을 기리고 학문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정신적 중심지였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9개의 서원은 연속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그리고 각 서원의 관리주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공통의 보존 원칙을 적용하되, 개별 서원의 역사적·지역적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속유산으로서의 일관성과 각 구성요소의 고유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배산임수의 지형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입지하였다.

다양한 방문객 프로그램도 9개 서원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성리학 및 전통 강좌, 서원에서 배향하는 유학 선현을 기리는 제향의식을 비롯하여 참여형 행사를 통해 서원을 단순한 관람지가 아닌 현대의 교육 자원이자 실천의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있다. 지역 주민은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거나 환경 정비 활동 및 지역 문화행사도 추진하며 이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에 일조하고 있다.

왼쪽
도산서원

다음쪽
무성서원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武威堂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21년 등재

한국의 갯벌은 한반도 서남해안과 황해의 동쪽 연안에 위치하며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로 이루어져 있다.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전 세계 400에서 600개체만 생존하는 위급종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해 IUCN 적색목록 위협종 22여 종, 그리고 범게 등 47종의 고유종에게 대체 불가능한 서식처를 제공한다. 펄·모래·암반 등 다양한 퇴적 환경은 물새 118종, 저서규조류 375종, 대형저서동물 857종 등 총 2,150여 종의 생물을 부양한다.

유산 지역은 호주·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알래스카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여정의 가장 좁아지는 병목 구간에 위치해 있기에, 많은 철새들의 핵심 중간기착지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한국의 갯벌은 긴 이동 경로에서 중요한 번식지 역할도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과학적 보전 노력이 조화를 이루며, 5개 시·군에 걸쳐 분포한 한국의 갯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은 갯벌 이용과 관리에 전통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고창은 '빅버드레이스'라는 경쟁형 조류 관찰 행사를 통해 시민이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하며 그들에게 갯벌의 가치도 알리고 있다. 순천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전봇대를 철거하고 무논을 조성해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대하고자 했다. 한편 신안은 지자체와 어민들이 협력하여 낙지 방류 사업을 통해 갯벌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전의 주역을 키우는 노력도 활발하다. 영리더스 포럼은 청년층이 갯벌을 배우고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서천은 갯벌전문해설사를 양성해 생태관광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고창의 세계유산학교는 어린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며 환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한다. 보성은 갯벌 전통 썰매인 '뻘배'를 활용한 유명 축제로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갯벌은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

이 유산 지역은
많은 철새들의 핵심
중간기착지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오른쪽
칠면초군락에서 휴식하는 흑두루미

다음쪽
보성 장도의 뻘배 어업

©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23년 등재

가야고분군은 대성동고분군, 말이산고분군, 옥전고분군, 지산동고분군, 송학동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총 7개의 가야 정치체 고분군으로 이루어져있다. 가야 고분군의 지리적 분포와 입지, 묘제, 부장품을 통해 가야의 독특한 정치체계를 알 수 있다. 가야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여러 정치체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각 7개 고분군은 각자 가야 정치체의 중심지이자 가시성이 뛰어난 구릉지에 조성되어 있다. 이들 고분군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하며 각 정치체의 지배층을 위한 장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가야고분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독특한 묘제과 부장품은 가야의 지리적 범위를 알려주고, 각각의 차이는 개별 정치체의 독립성을 보여준다.

대등한 수준의 위세품과 교역품은 각 정치체가 높은 자율성을 가진 수평적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가야고분군은 주변의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와 병존하면서도 독자적인 연맹 정치 체제를 유지하던 가야라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서는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관점과 체험을 제공하여 유산과 인간을 가깝게 연결하고 가야고분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유산의 가치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즐겁고 흥미로운 체험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 콘텐츠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가야고분군의 지리적 분포와 입지, 묘제, 부장품을 통해 가야의 독특한 정치체계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의 가야고분군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에의 활력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지역민들은 가야고분군과 지역 역사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직접 가이드로 활동하기도 한다.

왼쪽
옥전 고분군

다음쪽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고인(故) ©





© (재)아리랑문화재단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2025년 등재

반구천의 암각화는 대한민국 남동쪽 해안 반구천 약 3 킬로미터에 걸쳐 있다. 반구천을 따라 형성된 험준한 암반 지형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림이 집중된 두 주요 암반은 각각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알려져있다.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후 9 세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 장인들이 암각화를 제작하였다. 이는 반구천 지역의 독특한 경관 속에서 발전한 암각화 전통이 신석기시대, 청동기를 거쳐 통일신라까지 오랜 기간 이어져왔음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여러 시기에 걸쳐 이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의 문화 발전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돌과 금속 도구를 이용하여 새겨진 반구천의 암각화는 다양한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으며,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이 세계유산은 동아시아 연안에 거주한 사람들이 약 6,000년에 거쳐 이루어낸 탁월한 미적 감각을 입증하며, 뛰어난 사실적 묘사와 예리한 관찰력, 그리고 암반에 새겨진 그림들의 독특한 구도를 자랑한다. 동물, 인물, 사냥장면, 동심원, 마름모 및 문자는 사실성과 역동성을 드러내며, 갖은 도형과 명문이 결합된 독특한 구성요소도 보여준다. 특히 고래와 고래잡이 그림에서 예술성과 창의성이 돋보인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은 일부 암각화가 침수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야 가능했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집중호우시 하류에 위치한 용수 전용댐으로 인해 침수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따라서 해결방안은 유산 보존과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라는 두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끝에, 사연댐에 여수로 수문을 설치하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정부 계획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보존 관리 대책은 세계유산 등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다양한 보존 및 홍보 활동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물, 인물, 사냥장면,
동심원, 마름모 및 문자는
사실성과 역동성을 드러낸다.

오른쪽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다음쪽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경관

ⓒ 울산광역시







심층탐구

문화경관, 자연의 품



가이아 반스 기고



© Hortobágy National Park Directorate/ István Derencsényi



얼핏보면 광활하게 펼쳐진 푸른색, 녹색과 회색의 풍경은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멕시코 서부의 사막 지대 테킬라 화산 기슭과 리오그란데강의 깊은 계곡 사이, 즉 내륙에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청록빛 풍경은 여러 줄로 갈라져 보이는데, 그 규칙적인 배열은 인간이 이 풍경을 만들었음을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이곳은 할리스코 주의 용설란(agave)지역이며, 그 규칙적인 줄들은 실은 끝없이 줄지어 심어진 푸른 용설란 열(列)이다. 푸른 용설란은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이곳에서 재배되어 온 길들여진 다육식물이다.

용설란은 성장 속도는 더디지만 매우 크게 자라는 다육식물로, 두꺼우면서 육질의 가시 달린 잎들이 로제트 형태로 촘촘히 모여 자란다. 십여 년이 넘는 성장 끝에 중앙에서 거대한 꽃대를 올리다가 단 한 번 꽃을 피운 뒤 서서히 생을 마감한다. 용설란은 약 200종이 존재하지만, 이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푸른 용설란은 멕시코의 대표 산물인 테킬라에 버금가는 국가적 상징으로 여겨진다.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테킬라 생산 시설' 유산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인간의 활동으로 조성되어 오늘날까지도 번성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포함하며, 정확히 20년 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이 유산은 주민들과 자연환경 간의 오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고유한 장소로서, 오늘날 멕시코인들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리스코 주 과달라하라에 거주하는 건축가이자 문화경관 관리자인 루이스 이그나시오 고메스 아리올라는 "해외로 전해진 멕시코 문화에는 크게 테킬라, 차로(멕시코 카우보이), 그리고 마리아치 음악으로 구성되며 모두 같은 지역에서 유래한다. 마리아치 노래에는 테킬라에 관한 내용도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보통 해외에 나가서 누군가가 내가 어디 출신인지 물으면 '멕시코'라고 답하면 자연스레 '테킬라'라는 반응이 돌아올 만큼 그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덧붙였다.



©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México

고메스 아리올라에 따르면, 데킬라 생산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고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고대 시기부터 용설란을 생산한

이전쪽
호르토바지 국립공원—푸스터 (헝가리)

왼쪽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테킬라 생산 시설 (멕시코)

위
루이스 이그나시오 고메스 아리오라

© Ko Hon Chiu Vincent

흔적이 있다. 이 곳에서는 용설란 다발을 지고 있거나 수확 도구를 든 농부들의 테라코타 조각상들이 발굴되었는데, 이 조각상들은 메소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장례 제물로 제작한 것으로, 기원전 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부 멕시코 샤프트(shaft) 무덤 조각상'은 테킬라의 전신이자 발효 용설란 음료인 풀케(pulque)를 들고 있는데, 풀케는 당시 사회의 특정 계층만이 마시던 음료였다.

스페인인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용설란의 심을 얻기 위해 용설란을 경작했다. 잎을 모두 잘라내면, 파인애플을 닮았다고 해서 '피냐'라고 불리는 부분이 남는데, 여기에는 다량의 전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재배된 피냐를 26 시간 동안 가볍게 쪄서 전분을 당분으로 전환시킨다.

고메스 아리올라는 "피냐는 칼로리가 매우 높은 달콤한 음식이 된다. 익혀서 발효시킨 아가베에서 달콤한 즙을 짜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약 6 퍼센트 정도의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 있다. 이를 '모스토(mosto)'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했다.

이 유적지에는 기원후 200년부터 900년까지 테킬라 지역을 형성했던 테우치틀란 문화의 고고학적 흔적이 남아 있으며, 당시 사람들은 용설란을 식량, 발효주, 옷감을 위한 섬유로 활용했다.

유럽의 포도 재배 문화와 와인에 익숙했던 스페인인들은 증류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냈다. 고메스 아리올라는 "스페인인들은 증류기를

"용설란 재배 방식은 히스패닉 이전 시대와 같고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용한 아랍의 증류 기술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원료를 증류하면 알코올 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럽에는 브랜디나 코냑과 같은 증류주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고메스 아리올라는 "모스토를 처음 증류하면 알코올 도수가 26 퍼센트가 되고, 두 번째 증류를 거치면 50 퍼센트까지 올라가 테킬라가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번성하는 전통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히스패닉 정복 이전의 소규모 농장들은 곧 규모가 커졌으며, 이 유적지에는 수백 년 된 노동자 주택들과 오래된 압착기가 남아 있다. 증기로 쪄낸 피냐를 압축하여 즙을 짜내기 위해 필요한 무거운 돌을 끌기 위해 당나귀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살아 숨 쉬는 문화경관을 보존한다는 것은 오랜 세월 지속된 연속성, 즉 문화적 완전성의 유지를 의미한다. 고메스 아리올라는 "용설란 재배 방식은 히스패닉 이전 시대와 같고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 곳의 위대한 문화적 가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변한 것은 규모뿐이다. 오늘날에는 수백만 그루의 용설란이 자라고 있지만, 히스패닉 이전 시대에는 소규모 농장만 있었다. 또한 100년 전만 해도 데킬라 생산에는 7가지 품종의 용설란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데킬라 원산지 표시제 및 관련 규정으로 인해 푸른 용설란만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단일 작물 재배에는 질병 취약성 등 내재된 위험이 따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고메즈 아리올라는 "푸른 용설란은 기계가 아닌

오른쪽
자테츠와 사즈 홉 경관 (체코)

© Václav Mach







© Pauline Mongarny/Shutterstock.com



사람의 손으로 심고 수확한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작물의 부가가치이며, 매우 핵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테킬라 생산에 드는 노동력과 그 상업적·명예적 가치는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농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는 많은 농업 지역의 추세와는 달리, 이곳은 이러한 현상을 역행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지역 사회를 중심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고메즈 아리올라는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이 활동이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제공하여 그 연결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즉,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올해 우리는 세계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이한다. 그 혜택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기념물 유산을 넘어

용설란 지역의 인상적인 경관과 마찬가지로,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의 공동으로 빚어낸 결과물이자, 특정 환경 속에서 인간 사회와 정착 문화가 발전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소들은 대개 자연과 정신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구체적 토지 이용방식을 잘 드러낸다.

1990년대 초,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해석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기념물적 성격에 국한되지 않는 문화경관 유산의 가치를 점차 인정하면서, 유럽 이외 지역의 다양한 문화권의 기회도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문화경관을 규정하는 개정 기준에 따라 가장 처음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곳은 1993년의 통가리로 국립공원이다.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이 유산은 자연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긴밀하게 어우러진 공간이다. 특히 공원 중심부의 산들은 마오리족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 모두 134개의 문화경관이 등재되어 있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의 공동으로 빚어낸 결과물이자, 특정 환경 속에서 인간 사회와 정착 문화가 발전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장소를 의미한다.

문화경관 보호는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적 방식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며, 전 세계의 생물학적·문화적 다양성을 뒷받침한다. 유네스코-그리스 멜리나 메르쿠리 문화경관 보호 및 관리 국제상(UNESCO-Greece Melina Mercouri International Prize for the Safeguarding and Management of Cultural Landscapes)은 2년마다 수여되며 그리스의 전 문화부 장관의 이름을 따 지어졌다. 이는 살아있는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한 본보기가 되는 노력을 기리는 상이다. 작년 수상자는 '와지 와 마징이라(Wazee wa Mazingira)' 원로회로, 케냐

이전쪽
통가리로 국립공원 (뉴질랜드)

왼쪽
비날레스 계곡 (쿠바 / '유네스코-그리스 멜리나 메르쿠리 문화경관 보호 및 관리 국제상' 최초 수상지 중 하나)

© Diego Anderegg/ Shutterstock.com

"우리는 이곳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에, 지역 공동체가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 바로 안쪽에서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북부의 쿨랄 산 생물권 보전지역을 보호하는 데 보여준 리더십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일시적인 안식처'를 의미하는 쿨랄 산은 삼부루, 투르카나, 렌딜레, 가브라, 엘 몰로 공동체에게 신성한 경관이다. 숲과 협곡, 수원은 전통, 의례, 조상의 지혜와 얽혀 있어, 각 세대가 이 산맥을 보전해 나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원로들은 전통적 관행과 현대적인 보전 방식을 조화시켜, 산림 순찰, 자원 이용, 재생 프로그램, 생태계 교란종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와지 와 마징이라는 환경과의 깊은 문화적·영적 유대를 유지함으로써, 조상의 지혜가 대대로 전승되고 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하며, 쿨랄 산의 과거, 현재, 미래의 수호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고대의 혁신가들

태평양을 건너 파푸아뉴기니에는 경이로운 '쿠크 초기 농경지'가 자리 잡고 있다. 서부 고원 주의 와기 상류 계곡에 위치한 이 유적지는 2008년에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고구마, 타로, 바나나를 재배하는 평범해 보이는 늪지대 농경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고고학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바로 오세아니아에서 농업이 독자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약 7,00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규모 지형 공학 기술 등의 증거가 발견됐다. 이는 쿠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 유적지 중 하나임을 뜻한다.

쿠크는 인간이 채집한 식물을 이용하던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재배하고 수확하는 단계로 나아가며 이룬 기술적 도약을 보여준다. 이 지역에서는 농업 방식이 시간에 따라 발전하였는데, 습지 가장자리에 흙더미를 쌓는 단계에서 시작해 기원전 4,000년경부터는 나무 도구를 이용해 도랑을 파고 습지의 배수를 이루는 단계로 나아갔다. 이러한 배수 작업은 자연 상태의 늪지를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인공 초지로 변모시켰다.

파푸아뉴기니 세계유산 관리자인 짐 온가는 "쿠크의 농업 발전은 오세아니아 전역에 걸쳐 오늘날의 문화와 사회가 확산되고 정착하며 성장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따라서 쿠크는 파푸아뉴기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교육적, 역사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 주민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혁신가였으며, 농업이 이곳에서 독자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증명한다.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늘날 이 지역의 멜파어를 사용하는 카웰카족 농민들은 이 땅의 전통적인 수호자로서, 고고학 보존 구역과 인접한 땅에서 조상들이 재배하던 것과 똑같은 식량 작물을 여전히 재배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에, 지역 공동체가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 바로 안쪽에서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온가는 설명한다. 나아가, 그는 "쿠크는 여전히 살아있는 농업 관행의 일부이며 일찍이 농부들을 지탱했던 바로 그 계곡이 오늘날에도 고지대 농부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대의 농업과 현재의 농업이 공존하는 경관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오른쪽
메이만드의 문화경관 (이란 이슬람 공화국)

다음쪽
쿠크 초기 농경지 (파푸아뉴기니)

© Maymand Cultural Heritage Base







© OUR PLACE The World Heritage Collection/ Amos Chapple



카웰카 부족은 법인화된 토지 단체(Incorporated Land Group)를 통해 쿠크 습지 유적지를 관리하며, 고고학적 유적 보존과 지역 경제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유적지 관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는 유적의 유실과 가뭄을 유발할 수 있는 기후 변화와 홍수 위험을 초래하는 배수로 막힘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전문 지식의 부족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유적지의 중요성과 의미를 읽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영어와 우리 언어로 된 정보 팸플릿이나 포스터 같은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 쿠크 유적지에 대한 웹사이트도 없는데,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자금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온가는 말했다.

쿠크 유적지의 세계유산 등재는 8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풍부하고 유서 깊으며 다양한 문화를 지닌 국가인 파푸아뉴기니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은 중요한 쾌거다.

"쿠크가 문화 경관으로 등재되면서, 유산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형성해 온 살아있는 경관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단순히 석조 건축물뿐만 아니라 농업, 수자원 관리, 공동체 관습을 유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다른 농업, 영적, 복합 유적지들에게도 길이 열렸다"고 온가는 전했다.



© Jim Onga

대지의 건축가들

코마타코, 바타마리바 지역은 2004년 문화경관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토고 북동부와 베냉 북서부에 걸쳐 있는 이 지역에는 농경과 축산을 병행하는 바타마리바족이 거주하고 있다. 바타마리바라는 이름은 '대지의 건축가들'이라는 뜻이다. 지난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들은 농경지와 계단식 구릉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공간과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결합해 왔으며, 자연에 정신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한 독특한 경관을 형성했다. 이 놀라운 경관의 일부로는 유명한 진흙으로 지어진 탑형 주거지가 있다.

이곳은 그야말로 살아 숨 쉬는 풍경이다. '시키엔(sikien)'이자 단수형으로는 '타키엔타(takienta)'으로 알려진 독특한 진흙 탑 형태의 건물들에 여전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토고와 베냉의 상징이 되었다. 대부분 이층 구조인 토고의 시키엔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냉 쪽에 위치한 바타마리바족의 초기 정착지는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이 민족이 현재의 토고로 이주하기 이전에 지어진 것이다. 이 독특한 요새 같은 주택들은 바타마리바족이 노예 사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자연과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 개발되었다.

위
짐 온가

왼쪽
알-파우 고고학 지역의 문화경관 (사우디아라비아)

© Thomas Creissen

토고 로메의 관광문화예술부 문화유산국장이자 유적 관리자인 아다마 아이쿠에는 “이 공동체는 자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연을 존중한다. 사람들은 숲과 수림 지대에서 성인식과 의례를 치른다. 또한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애니미즘의 일부로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나무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들의 제단에서는 사냥한 동물의 두개골과 함께 곡물이나 덩이줄기 같은 농산물이 함께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2023년, 유네스코는 해당 세계유산의 범위를 확장해 베냉 지역을 포함하도록 승인했다. 이후 토고와 베냉은 해당 유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양국의 문화유산 담당 기관이 감독하는 관리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코타마코 전역에서는 수천 개의 시키엔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토고에는 1,716채, 베냉에는 1,400채에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시키엔을 유지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는데, 이는 고대 건축 전통과 의례, 기술, 지식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바타마리바족의 삶의 방식은 본질적으로 지속하다며, 아이쿠에는 “이들이 집을 짓고 유지하며 장식하는 데 쓰이는 모든 재료가 자연에서 직접 얻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흙벽 구조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기둥은 흰개미 등에 강한 특정 종류의 내구성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지역 공동체들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목재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건축 방식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코타마코의 주거지, 요새, 그리고 영적 중심지들은 수 세기에 걸쳐 거주민들에 의해 수리, 유지, 재건되어 왔다. 전통 건축 방식은 건물이 노후화되면 기존의 흙으로 된 핵심 구조를 허물어 새롭게 재건하는 타키엔타 (직역하면 ‘지키는 자’)에 다시 결합한다. 타키엔타는 사원인 동시에 요새화된 피난처로서 기능했으며, 거주민들은 벽에 뚫린 좁은 틈을 통해 화살을 쏘아 외부의 공격을 방어했다. 또한

오른쪽
아다마 아이쿠에와 토고 코타마코, 바타마리바 지역

아래
베냉 코타마코 바타마리바 지역 내 나타 언덕 꼭대기의 타키엔타



© Sébastien Moriset

© Direction du Patrimoine culturel, Ministère du Tourisme, de la Culture et des Arts du Togo





이곳은 보이지 않는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묘지에 묻힌 죽은 자들과 대지의 힘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개별 벽은 자주 재건축되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역사는 수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타마리바족은 건물의 지붕을 엮는 데 사용되는 짚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마찬가지로, 기름 씨앗을 생산하는 네레 나무의 껍질도 활용했다." 최근 들어 마을 인근에서 새 집을 짓기 위한 충분한 목재와 짚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아이쿠에의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조화로운 삶

규모가 큰 요새들 역시 사람들이 거주하며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 아이쿠에는 "요새의 구조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해준다. 내부에는 부엌이 마련되어 있고, 가금류와 염소를 기르기 때문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심지어 소와 암소까지 요새 안에 기르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건축물 자체는 기능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입구에는 세 개의 뿔이 달려 있다. 아이쿠에는 "집주인이 사망하면 뿔 하나를 부러뜨린다. 그래서 집을 지나갈 때, 뿔 세 개 대신 하나가 부러져 두 개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곳에 과부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이 독특한 경관을 찾는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 아이쿠에는 "지역주민들은 관광객을 보는 게 익숙하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사생활도 공개한다. 여섯 가구 정도는 시키엔을 게스트하우스나 홈 스테이로 개조하기도 했다. 방문객들은 별빛 아래에서 잠을 자며 타키엔타에서의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코타마코 보존 및 홍보 담당 부서, 현지인 가이드, 그리고 방문객 사이에 상호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지역 사회의 뜻을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방문객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곳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잘 활용해 왔다."

멕시코의 용설란 경관과 파푸아뉴기니의 쿠크 농경지와 마찬가지로, 코타마코는 한 사회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낸 특별한 장소이다. 문화경관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오늘날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아이쿠에는 "나는 이곳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잘 활용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왼쪽
아시비스윗–니피사트: 얼음과 바다 사이의 이누이트 사냥터 (덴마크)

© Johannes Müller





지하의 신비와 지상의 치유

세계유산의 발견과 회복 이야기

전용문, 김현용 기고

© 전용문

대한민국에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탁월한 가치를 지닌 17개의 세계유산이 존재한다. 이들 유산은 각각 과거의 기억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연과 문화, 지질학적 시대와 역사적 시대, 지하와 지상의 세계를 아우르며 한국 유산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두 유산이 있다. 바로 용천동굴(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일부)에서 일어난 놀라운 지질학적 발견과 훼손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미륵사지 석탑(2015년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일부)이다.

그중에서도 자연과
문화, 지질학적 시대와
역사적 시대, 지하와
지상의 세계를 아우르며
한국 유산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두 유산이 있다.

용천동굴이 간직한 지하의 신비

용천동굴의 신비한 이야기는 약 8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폭발적인 화산활동은 해발 456 미터의 거대한 화산체를 형성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거문오름이다. 이후 폭발의 기세가 잦아들면서 막대한 양의 뜨거운 현무암질 용암이 뿜어져 나왔고, 이 용암류는 지형의 경사면을 따라 약 14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까지 굽이쳐 흘러 내려갔다. 이 뜨거운 용암이 땅 속을 흐르며 비워낸 거대한 공간들이 바로 일련의 용암동굴 무리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용천동굴 외에도 수직굴, 벵뒤굴,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동굴, 만장굴, 김녕굴, 그리고 하류의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등 제주의 내로라하는 동굴들이 모두 이 하나의 뿌리에서 태어났다. 용천동굴은 바로 이 14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미궁의 하류 끝자락에 캄캄하게 숨겨져있었다.

우연이 선물한 발견

2005년 5월, 평범한 전신주 공사 현장에서 놀라운 발견이 일어났다. 전신주 설치를 위한 굴착 과정에서 용천동굴이 그 웅장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었다. 디지털 스캔 결과, 용천동굴은 주 통로라 할 수 있는 주굴의 길이만 2,431 미터에 달했다. 동굴의 천장 높이는 최대 20 미터로 측정되었다. 호수 구간 800 미터와 가지굴 170 미터를 모두 합치면 총길이가 무려 3,401 미터에 이른다. 동굴이 시작되는 최상류의 바닥 높이는 해발 52.2 미터이지만, 하류로 걸어 내려갈수록

이전쪽
용천동굴 입구

오른쪽
용천동굴 천장 생성물

© 전용준




Castrol

점점 고도가 낮아져 호수 구간은 아예 바다 수면보다 낮은 깊은 지하 세계로 이어진다. 동굴의 모양은 마치 뱀이 기어가듯 좌우로 굽이치며 제주도의 북동쪽 해안을 향해 뻗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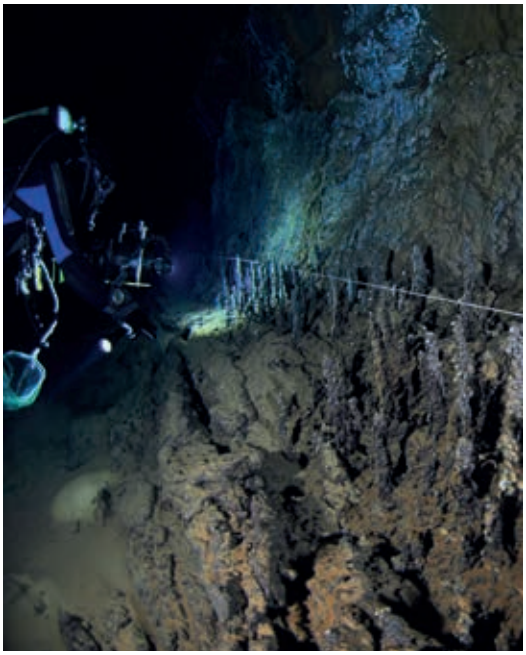
동굴 내부에는 해양성 석회질 모래가 빗물에 녹으면서 만든 탄산염 생성물이 공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유관, 동굴진주, 유석 등 화려한 2차 생성물이 발달했으며, 현무암 용암의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어 더욱 빛을 발한다. 특히 식물 뿌리를 따라 성장한 기형적 구조는 지질학적 및 미학적 가치를 더한다.

고대 홍수로 생긴 호수

2005년 발견 당시만 해도 최초 170 미터 구간의 호수는 배를 이용해 탐사되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다이버들의 수중 탐사 덕분에 물로 가득 찬 800 미터의 거대한 수중 동굴의 전모가 밝혀졌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차올라 동굴 끝에 호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수중 구간 벽면에도 육상 동굴처럼 용암선반이나 밧줄구조 같은 미지형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호수 구간은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층 구조를 띤다. 입구는 얕아, 바닥은 물에 잠겨 있고 위층은 육상 동굴처럼 비어 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심은 점점 깊어지며, 동굴의 폭도 최대 20 미터까지 넓어진다.

이 호수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교차로이다. 이 때문에 물속을 들여다보면 위층과 아래층의 물이 섞이지 않고 나뉘어 있는 성층화 현상이 뚜렷하다. 빗물과 지하수가 섞인 표층수는 염분이 낮고 산소가 풍부한 반면, 바닥 쪽 저층수는 바다에서 직접 유입된 해수 탓에 염분이 높고 산소는 희박하다.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수위가 오르내리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외부의 따뜻한 빗물이 유입되어 수온이 급격히 오르기도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위
용천동굴 호수 수중 전경

왼쪽
호수 조사

다음쪽
용천동굴 입구 전경

© 제주특별자치도


© UNESCO



어둠 속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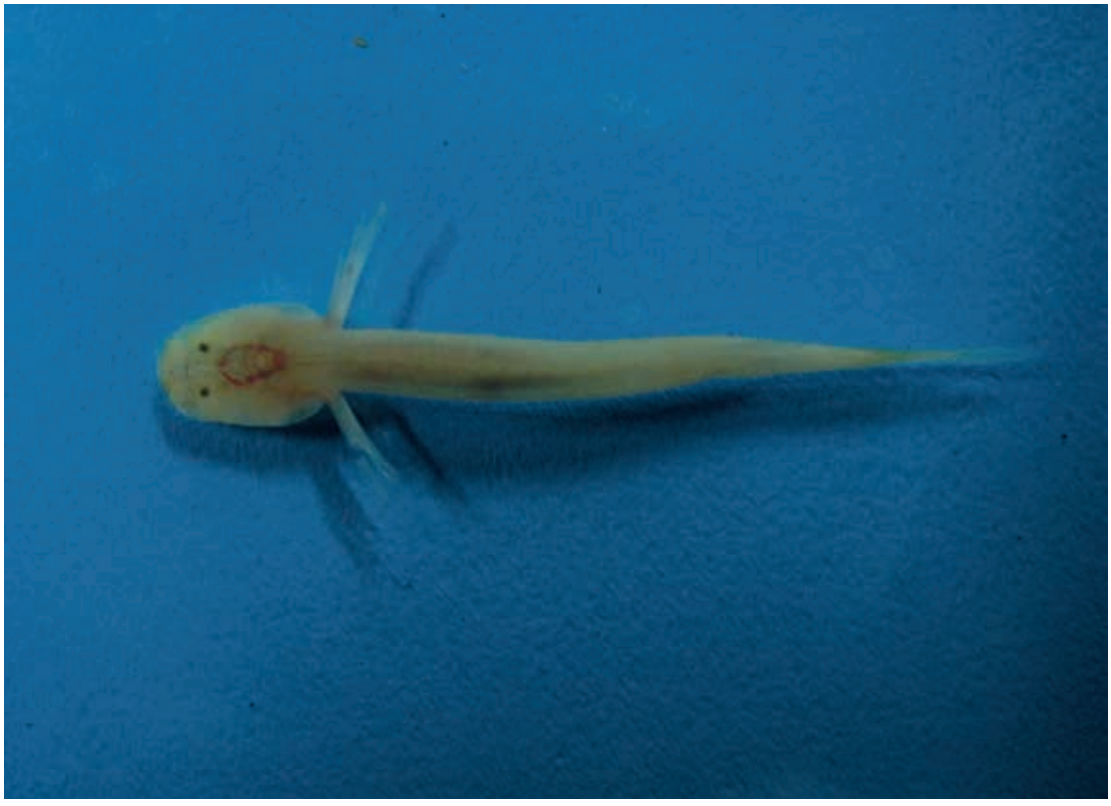
생명조차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캄캄한 호수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2010년 탐사 중에 발견된 작고 투명한 물고기이다. 이 물고기는 수천 년간 빛 한 점 없는 동굴에 갇혀 지내면서 일반 망둥어와는 완전히 다른 진화의 길을 걸었다. 눈은 퇴화되어 사라졌고 몸의 색소도 모두 빠져 투명해졌으며, 대신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머리가 커지는 쪽으로 진화했다. DNA 분석 결과 친척 물고기(주홍미끈망둑)와 유전적으로 8.9 퍼센트나 차이를 보인다.

한편, 호수 주변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은 8세기 탐라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토기들과 철기, 그리고 호수를 건너기 위해 징검다리처럼 놓았던 약 10 미터 길이의 길쭉한 나무 기둥들이 물속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도축된 흔적 없이 온전한 뼈대만 남은 1년생 멧돼지 유골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동굴로 내려와 멧돼지를 바치며 신성한 제사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흘러 무너진 동굴 입구는 모래로 덮여 막혀버렸고, 용천동굴은 2005년 발견 때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채 긴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지하 갤러리를 아끼고 과학적으로 보전해 나가는 한, 용천동굴은 앞으로도 수천 년에 이르는 경이로운 이야기와 지구의 활력을 계속해서 전해줄 것이다.

아래
주홍미끈망둑속 희귀어류

오른쪽
용천동굴 호수 내부 발견 유물



© 제주특별자치도

© 전용문





미륵사지 석탑(서탑)은 현존하는 한국의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석탑이다.

미륵사지 석탑

한국에는 500여 기의 국가 및 지방 지정 문화유산 석탑이 남아있으며, 이는 한국이 '석탑의 나라'로 불리게 된 배경이 되었다. 현존하는 한국의 석탑들은 대부분 삼국시대 말,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7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건립되었다.

오랜 세월을 겪으며 석탑은 빠르게 풍화 및 훼손을 겪고 있다. 20세기 초 석탑에 대한 조사와 수리는 석탑에서 발견되는 유물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고고학, 미술사 분야에 치중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정밀기록과 과학적 보존처리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석조 문화유산의 수리와 보존 처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수리 사업이다.

7세기 백제 제30대 왕인 무왕 시기에 건립된 익산 미륵사는 세 개의 불전들이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된 독특한 형식의 사찰이었다. 각 불전 앞에 탑이 세워졌으며 동·서쪽에는 석탑이, 중앙에는 목탑이 있었다.

목탑을 비롯한 목조건물들은 16세기 전후에 모두 소실되었고 반쯤 무너진 서탑과 일부 건물터의 석재 유구들만 남아있다. 미륵사지 석탑(서탑)은 현존하는 한국의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석탑이다. 이 석탑은 목조건축의 구조와 기법을 석재로 구현해 낸 시원형 석탑으로써 한국 고대 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 불교문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되었다.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1998년 실시된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1915년에 보강된 콘크리트의 노후화로 인해 석탑의 구조적 불안정이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유산청인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석탑의 해체 수리를 권장하게 되었다.

콘크리트 보강 이전의 석탑에 대한 역사 및 고고학적 자료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체를 진행하면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리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1년 본격적인 석탑의 해체가 시작되었다.

왼쪽
미륵사지 전경(2019)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후 석탑의 복원 범위를 두고 오랜 기간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가 이어졌다. 원래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9층으로 완전히 복원하자는 의견과 남아있는 6층까지만 수리하여 현상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석탑의 해체와 발굴 조사는 2010년까지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 9층 복원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탑이 7층 이상 존재했음을 고증할 수 있는 문헌이나 실체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추정 복원 시에는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석재들의 보존 상태도 문제였다. 오랜 시간 풍화와 외부 요인으로 손상된 원석재의 물리적 성능이 신석재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9층 복원 시 증가된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다수의 원석재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후 석탑의 복원 범위를 두고 오랜 기간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가 이어졌다.

수리의 기본원칙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1년에 '미륵사지 석탑 수리 기본원칙'이 수립되었다. 핵심은 '복원은 추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추어야 한다'라는 국제적인 문화유산 보존원칙을 따른 것이었다. 네 가지 기본원칙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무리한 추정 복원을 지양하고, 원래 남아있었던 6층까지만 수리하여 석탑의 진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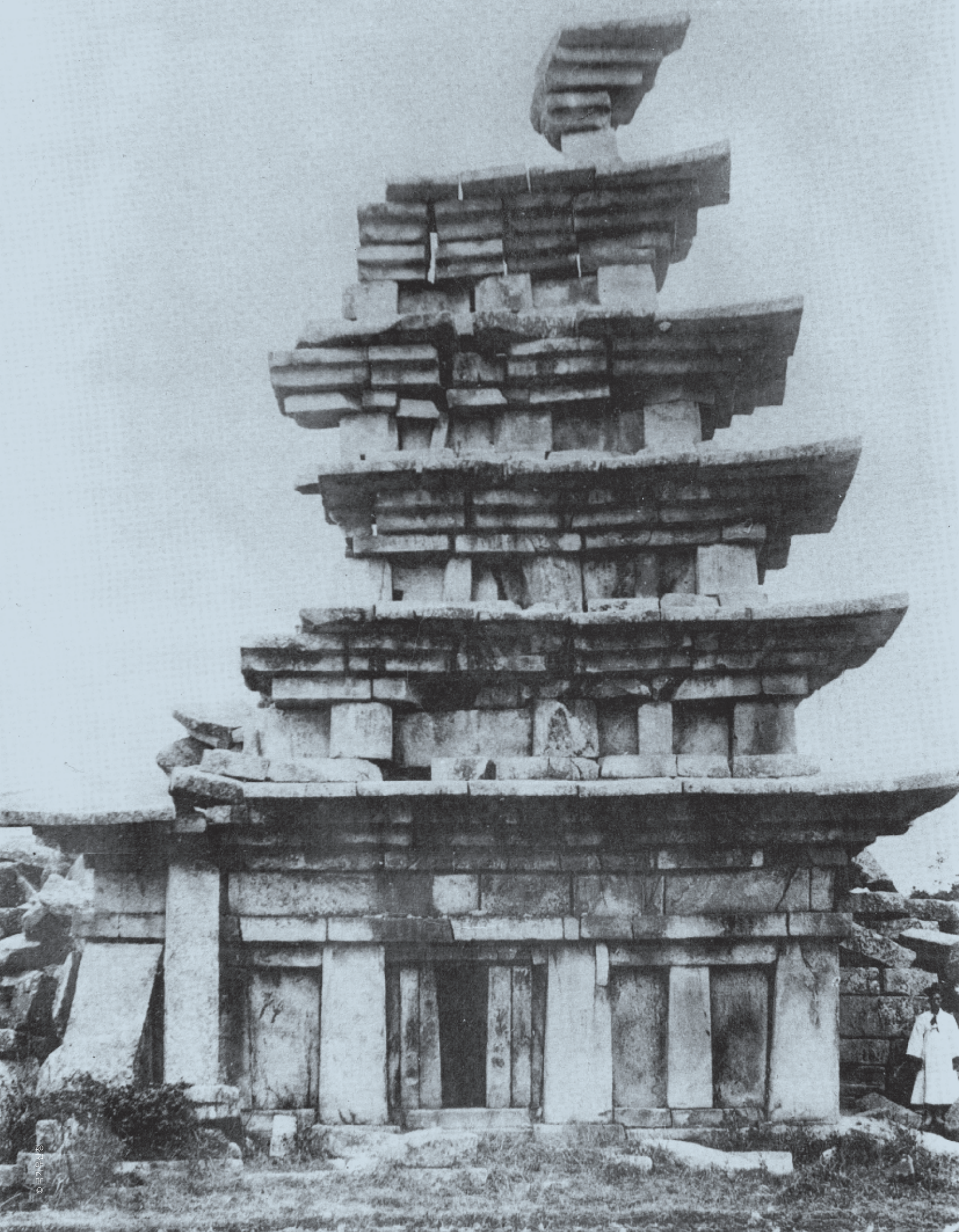
석탑 수리 작업은 건축, 보존과학, 고고학,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조사연구와 함께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1층 내부의 심주석(心柱石)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백제 지역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중 금판으로 제작된 유물에서 백제왕후의 발원으로 미륵사가 조성되었고 639년에 사리를 봉안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2013년에 시작된 석탑의 조립은 2017년 말에 완료되었고, 2019년 가설시설물의 철거와 주변 정비를 끝으로 미륵사지 석탑의 수리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오른쪽
미륵사지 석탑 1층부 조립 작업

다음쪽
미륵사지 석탑 동측면(1910년)과 석탑 수리(2020년) 후

© 국립문화재연구원


10Ton
(주)송도건설





세계적인 전문성

미륵사지 석탑은 한국에서 석조 문화유산으로는 20년이라는 최장기간 동안 수리가 진행된 사례이다. 가능한 원래의 재료와 기법을 존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현대적 재료를 도입하였다.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과정을 통해 습득한 실질적이고 기술적 성과는 석조문화유산 수리 역량을 강화하고, 보존 품질을 한층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전문성은 이후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 등 한국의 아시아 소재 세계유산 보수·복원 ODA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륵사지 석탑의 수리 과정은 유네스코가 제시해 온 국제적인 보존철학을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수천 년간 인간과 자연의 흔적을 묵묵히 지켜낸 미륵사지 석탑은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한 균형있는 보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아래
사리장엄구 발견 당시(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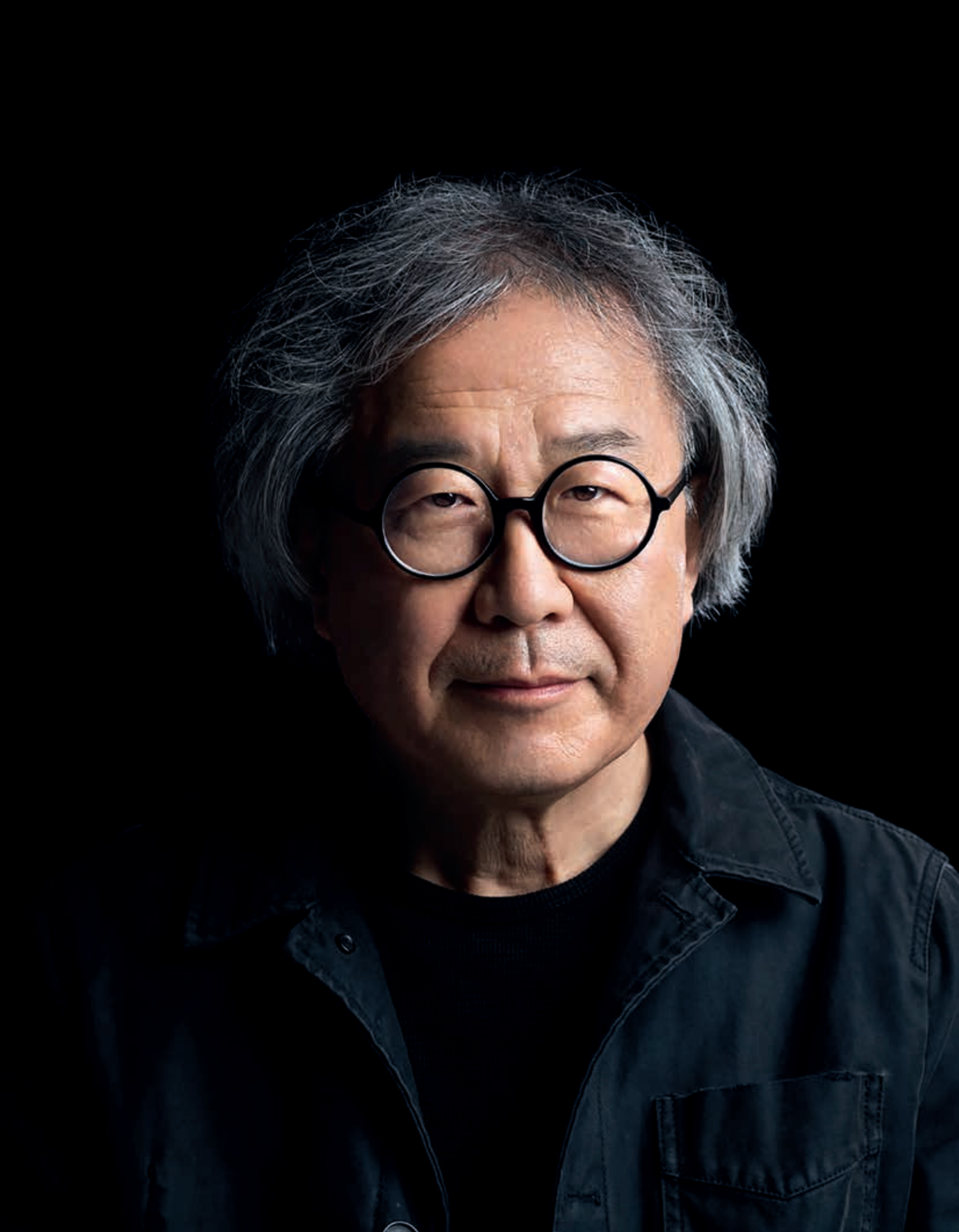
오른쪽
미륵사지 석탑 1층 내부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문화재연구원 ©





건축가 승효상

이 땅의 기억을 보존하고 전승하다

© 김종오

승효상은 20세기를 주도한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빈자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작업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건축가이다.

1952년생으로 한국 건축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4.3그룹'의 일원이었으며, 새로운 건축교육을 모색하고자 서울건축학교 설립에 참가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08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총감독, 서울시 초대총괄건축가 및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등이 있다.

2002년에는 건축가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2002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그 밖에도 '은관문화훈장', '미국건축가협회(AIA) 명예펠로우십', 오스트리아에서 수여하는 '학술예술 1급 십자훈장'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영예를 수상하였다.

1989년 설립한 건축사무소 이로재(履露齋)를 통해, 그는 전통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있다.

반세기 동안 건축에 몸담으셨습니다. 세계유산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 건축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제가 건축 실무를 시작한 지 올해로 51년째입니다. 제 건축은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없이는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옛 건축에 깊은 영감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건축은 저에게 기본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건축요소와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되는지, 나아가 도시가 어떻게 더 잘 작동할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저에게 옛 건축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나라 미래로 이어질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서양 건축이 건물의 형태나 존재감 등 시각적 대상에 치중한다면, 저는 우리 전통 건축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주안점을 둔 데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계유산 종묘입니다. 종묘의 정전이 전 세계인의 극찬을 받는 까닭은 건물 자체보다 그 앞에 놓인 '월대(月臺)'라는 비어 있는 공간이 주는 깊은 감동 때문입니다.

"서양 건축이 건물의 형태나 존재감 등 시각적 대상에 치중한다면, 저는 우리 전통 건축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주안점을 둔 데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전쪽
승효상 대표

오른쪽
애월한거

© 김종오





또 다른 예는 우리 건축의 핵심인 '마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당은 건물에 둘러싸인 비어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제사나 빨래, 김장의 공간이 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시 비워져 사색을 유도합니다. 저는 이를 '불특정적 비움'이라 부릅니다. 이 마당을 형성하기 위해 뒤에 대청이 있고 앞에 문간방이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미학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세계유산 병산서원입니다. 강당에 앉아 만대루(晩對樓)를 통해 바라보는 풍경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옛 건축은 이미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독함을 만끽할 수 있는 경주의 독락당, 위계없고 민주적인 공간 구성을 이루는 세계유산 선암사, 그리고 대로와 소로의 정돈된 질서가 살아있는 세계유산 통도사 등이 좋은 예시가 됩니다.

대표님의 작업 중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작품은 무엇인가요?

제 건축의 출발점은 '수졸당(守拙堂)'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89년 독립 후 처음으로 펴낸 책 제목이기도 한 '빈자의 미학'이라는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홍준 박물관장의 집이기도 한 이 집은 당시 유행하던 '초원 위의 집' 같은 형태를 거부하고, 70평 남짓한 땅에 마당을 3개나 배치하며 '비움'을 중심으로 지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늘 되돌아보는 집입니다.

그 외에도 수백 개의 작업이 하나도 빠짐없이 옛 건축의 지혜를 빌려왔습니다. 최근의 선곡서원 프로젝트 역시 명확하게 영감을 받은 사례이고요. 어떤 집이라도 우리 옛 건축의 사유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것이 제 작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종오

위
승효상 대표와 팀원들

왼쪽
선암사의 가을

©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대표님의 작업에 있어 전통 건축을 주요 영감의 원천으로 삼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건축은 반드시 땅을 점유합니다. 어느 땅이든 그 땅은 세계 어디에도 하나뿐이며, 그 안에는 자연과 문화가 만들어낸 수많은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터무늬'라고 불렀습니다. '터에 새겨진 무늬'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land-script'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 설계는 그 옛 무늬 위에 새로운 무늬를 하나 더 덧대어,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건축가의 임무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가진 사연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계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설계의 해답은 언제나 땅에 있습니다. 좋은 건축가라면 땅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유산과 현대 건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가 있나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구미 문화산단' 프로젝트는 약 4만 평 규모의 방직 공장 부지를 다루는 작업입니다. 현장을 가보니 공장이 이미 이전된 곳도 있고,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곳도 있으며,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과거의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흔적들을 지우기보다 보존하면서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억들이 모여 장소를 살아 있게 하는 서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흔적들은 누가 이곳에 있었고,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해 줍니다. 이렇게 과거는 현재와 이어지고 미래로 전달되며, 그 공간은 긴 역사를 품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 역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건축가의 임무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가진 사연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계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설계의 해답은 언제나 땅에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를 단순히 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조 건축의 경우 사람이 직접 살며 손때가 묻어야 나무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전쪽
병산서원 만대루

오른쪽
수졸당

© 김용순





더 오래 보전됩니다. 옛 기억의 터 위에서 현재의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건축입니다.

유산과 미래 건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건축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건축의 본질입니다. 도시의 풍경은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형성되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는 곧 미래의 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빌려 살아가는 존재이고, 결국 이 땅은 후손에게 전달되겠죠. 그렇기에 물려받은 그대로를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돌려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대한 예의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왼쪽
선곡서원

아래
작업 중인 승효상 대표



© 김종오

© 김종오

함께, 더 단단하게: 세계유산에서 품다



레라토 모고아틀레 기고



© Casa Batlló – Gaudí – Barcelona

세계유산에 있어, 아제르바이잔의 시르반샤 궁전과 메이든 탑을 포함한 바쿠 성곽도시는 가장 역사적 서사가 풍부한 유산 중 하나로 평가된다. 10,000년 전부터 인류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이곳은 오늘날에도 굳건히 인류의 위대한 창조적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1킬로미터에 걸쳐 잘 보존된 방벽의 돌 하나하나에는 12세기, 조로아스터, 페르시아, 아랍, 오스만 제국의 사회·건축·문화적 영향 속에서 형성된 카스피해의 주요 항구로서 바쿠가 펼쳤던 역동적인 전략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좁은 자갈길 골목을 몇 시간 동안 거니는 산책은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다. 이는 인류 공동의 정체성과, 기억의 수호자로서 유산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이 유산이 2000년 아제르바이잔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다.

선사시대부터 인류 형성에 영향을 준 카스피해 서쪽 경계에 위치한 이체리셰헤르 내성은 세계유산을 경험하는 방식의 새로운 지평을 접근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선도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아잇타지 알리술탄리는 이체리셰헤르 국가 역사·건축 보호구역 관리청의 이사회 구성원이다. 2025년 이후, 그녀와 관리청 팀은 접근성 증진 노력을 주도해왔으며, 그 결과 중요한 변화를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이동성 제약이 성곽도시 방문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장소의 진정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역사도시 공간을 안전성, 포용성, 편의성에 대한 현대적 기대에 부합하도록 적응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알리술탄리는 "접근성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에 기반한 '스마트 유산' 모델로의 보다 광범위한 전환의 일환으로 2025년에 핵심 전략 우선순위로 부상하였다. 그 촉매는 역사도시가 단순한 물리적 기념물로서만 보존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활동적이며, 의미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 촉매는 역사도시가 단순한 물리적 기념물로서만 보존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이전쪽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스페인)의 구성요소인 카사 바트요

오른쪽
바쿠성벽 도시 내의 건물들

© Roberto Canton





지난 1년간 관리청은 이동성, 길찾기, 디지털 접근, 공공공간의 질, 방문객 경험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사람 중심의 유산 관리 접근법을 추진해왔다. 그녀는 "접근성은 단순한 방문객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책임의 일부로 접근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순위인 접근성

바쿠 성곽도시에서는 접근성과 포용성이 다음과 같이 구현되었다: 기존의 노후 램프가 보수되었고, 무단차 접근이 불가능했던 구간에는 새로운 램프가 설치되었다. 네프치라르 대로에서 메이든 탑이 있는 광장으로 이어지는 공원 내 전용 접근 경로는 보다 편리하고 장애물 없는 접근을 보장한다. 교통 완화 조치 덕분에 차량 속도가 감소했으며, 전 구역에 속도 제한이 시행되어 안전성이 향상되고 모두를 위한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이체리셰헤르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물이며 바쿠를 상징하는 메이든 탑 정상에 오를 수 없는 방문객을 위해, 관리청은 외부 해석, 정보 자료, 가이드 설명, 시각 콘텐츠,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한 접근을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및 가상 체험은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유적지 내의 접근성은 물리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하다. 알리술탄리는 "이체리셰헤르 전체 둘레를 따라 보다 연속적이고 접근 가능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이동 제한이 있는 방문객, 고령 방문객, 유모차를 동반한 보호자 및 기타 이용자들이 역사 구역 내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우리가 받는 주요 피드백 중 하나는, 작은 개선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명확한 길 안내, 용이한 이동, 교통 부담 감소, 직원의 안내 지원, 디지털 정보 등은 고령 방문객, 아동 동반 가족, 또한 이체리셰헤르 내부를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많은 방문객에게 정서적 가치는 매우 크다. 이체리셰헤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기억, 정체성, 국가 유산과 연결된 장소다"라고 강조했다.



© Tahir Khalfaguliyev/ "Icherisheher" State Historical-Architectural Reserve Administration

위
아잇타지 알리술탄리

왼쪽
바쿠의 성벽 도시 이체리셰헤르에서 운행 중인 골프 카트

다음쪽
메이든 탑과 바쿠 성곽 도시

© Tahir Khalfaguliyev/ "Icherisheher" State Historical-Architectural Reserve Administration





© Tahir Khalilaguliyev/ "Icherisheher" State Historical-Architectural Reserve Administration

포용성의 선두주자들

약 4,200 킬로미터 떨어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카사 바트요는 전위적 디자인으로 매년 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다. 연속유산인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이 건축물은 저명한 카탈루냐 출신 건축가의 가장 유희적이고 환상적인 작업의 정점 중 하나로 평가된다. 가면 형태의 발코니, 뼈를 연상시키는 기둥, 용의 등을 닮은 옥상 등의 독창적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카사 바트요는 상상력이 불, 공기, 물, 바람, 대지, 공간과 만나는 장소가 된 걸작 건축물이다. 이 마법과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포용의 장이 전개되고 있다.

신경다양성(Neurodivergence)은 자폐 스펙트럼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포함하는 인간 인지의 선천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카사 바트요는 2021년 단순하지만 공고한 확신에 의거하여 신경다양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아나 아코스타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우리의 목적은 방문객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매일 문화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포용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사업은 조직 전반의 심층적 전환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카사 바트요는 100명의 신경다양인(Neurodivergent people)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조명, 색채, 소음 수준을 고려하여 물리적 공간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 응대 인력의 약 85 퍼센트를 신경다양인 직원이 구성한다.

이로써 카사 바트요는 방문객을 지원하는 신경다양인 팀을 보유한 세계 최초의 문화기관이 되었다. 이 사업 성공의 핵심에는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직원 호안 보테르와 같은 직원이 있다. 그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끼며 이는 카사 바트요에서의 경험을 마법으로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성공의 핵심으로 팀이 받는 교육을 꼽는다. "우리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고, 이는



© Casa Batlló – Gaudí – Barcelona

위
아나 아코스타

왼쪽
부서진 도자기 타일로 만든 다채로운 모자이크가 장식된 카사 바트요의 외관

© Darren M Green/ Shutterstock.com

직무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술 전반을 사랑하며,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경험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관련 팀은 역할극을 통해 신경다양성 방문객의 관점에서 카사 바트요를 탐색한다. 보테르는 "교육 과정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결국은 일상적인 경험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나는 헤드폰을 제공하거나 티켓을 확인하는 등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매우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보테르는 업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는 "나는 방문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언어의 설명을 암기하였다. 예를 들어 네 문장뿐이라도 이탈리아어를 연습하거나 프랑스어를 연습하는 것을 즐긴다. 이는 나에게 도전이자 즐거움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의 업무의 핵심이다. 우리의 비전은 신경다양성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존중되는 문화기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접근성 실천을 심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며, 포용성과 탁월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계속 입증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코스타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그녀는 "이 사업은 세계유산이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살아있는 포용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포용이 별도의 프로젝트가 아닌, 기관의 정체성, 전략, 일상 운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사 바트요는 2025년 유럽문화유산상/유로파 노스트라상의 시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부문을 수상하며 주요 성과를 이루었다. 사회적·문화적 혁신에 대한 카사 바트요의 헌신과 문화유산 분야에서 포용성과 신경다양성 인식 제고 노력을 인정받았다. 아코스타는 "이 경험은 다양성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자산임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관점은 조직을 강화하고, 문화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더 강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오른쪽
조안 보테르

아래
카사 바트요의 소용돌이 샹들리에



© gfxhaptic/ Shutterstock.com

© Casa Batlló – Gaudí – Barcelona


CASA BATLLÓ
GAUDÍ BARCELONA


RUANG
TUNGGU

"유산 장소를 방문하는 경험은 오랫동안 주로 시각적 인식에 의존해왔다."

보테르는 포용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중요하다. 바로 서로 다른 감수성에 대한 수용, 관용, 공감의 메시지다. 오늘날 TV나 기타 매체를 보면 이러한 가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많은 편견이 존재하며, 이러한 편견은 깨져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보여주고, 그 현실이 다양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비시각적 감각을 통한 유산 경험

시각장애인의 경우 유산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관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유산으로의 접근 수단이 여전히 시각적 매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자와섬 족자카르타에서 유네스코는 포용성 중심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이 세계유산 방문 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유산 전문가와 지역 문화 당국도 참여하여 시각장애인이 유산을 경험하는 방식을 재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 문화팀장 모에 치바는 "유산 장소를 방문하는 경험은 오랫동안 주로 시각적 인식에 의존해왔다. '관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방문객이 기념물, 경관, 건축적 아름다움을 눈을 통해 감상한다고 전제한다. 유산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석 도구는 안내판, 책자, 지도,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스크린 등이 있는데 주로 시각 중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다. 오디오 가이드조차도 '보시다시피' 또는 '오른쪽을 보면'과 같은 표현을 활용하며 시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시각장애 방문객을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슬레만의 플라오산 사원에서 시범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설명적 가이드 기법을 통해 참가자들은 사원의 역사, 조각, 상징적 도상, 건축적 세부 요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생생한 언어적 설명과 정교하게 안내된 촉각적 상호작용을 결합함으로써 방문객은 인도네시아 문화유산의 풍부함에 몰입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참가자인 악바르 아리안토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이드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과거 플라오산 사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역사와 연결될 수 있었다."

이 워크숍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과 공동으로 기획되었으며, 치바는 이것이 성공의 핵심 요소로 여긴다. 이는 유산 전문가와 시각장애 참가자 모두에게 중요한 성과와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치바는 모든 응답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이 워크숍이 유산 맥락에서 접근성과 장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도전하거나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균형 유지

세계유산 관리는 해당 장소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드는 고유한 요소들의 결합인 이른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요소의 추가나 변경은 허용되지만, 유산의 완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알리술탄리는, "핵심 원칙은 모든 접근성 개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는 개입이 최소화되고, 신중하며, 가능한 경우 가역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르반샤 궁전과 메이든

왼쪽
플라오산 사원을 방문 중인 악바르 아리안토노

© UNESCO/ Ars Management





© UNESCO/ Ars Management

탑을 포함한 바쿠 성곽도시에서는 엄격한 사례별 접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고 있다. "현대 건축물에서는 접근성 해결책이 직접적이고 표준화될 수 있지만, 중세 도시 환경에서는 지형, 재료, 협소한 거리, 고고학적 층위, 보존 요구사항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코스타 역시 “카사 바트요의 경우 모든 조정은 유산의 진정성과 보존 요구사항을 존중하면서도 방문객이 그 문화적 중요성과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포용이 추가적 요소가 아니라 관리 체계의 일부가 되도록 방문객의 요구와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비단 건축적 보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더 나아가, "유산은 동시대 사회를 반영하고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살아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가우디는 불규칙성에서 아름다움을, 차이 속에서 조화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언급했다.

"가장 변혁적인 혁신은 종종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있다."

함께 일하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QR 기반 정보 시스템, 디지털 내비게이션, 다국어 콘텐츠, 오디오 가이드, 온라인 방문객 정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의 유산을 방문객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알리술탄리는 "이러한 도구는 방문객이 방문을 계획하고, 동선을 이해하며, 기념물 정보를 접근하고, 보다 독립적으로 유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동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은 방문 전후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무엇을 예상해야할지 알고,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게끔 한다. 더불어 원격 또는 현장에서 콘텐츠에 접근하며,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신기술과 파트너십의 결합이 카사 바트요를 포용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동시에 아코스타와 팀의 접근 방식은 언제나 인간 중심성적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변혁적인 혁신은 때로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있다. 이는 다양한 사고 방식과 세계 경험이 존중되고 강화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알리술탄리는 이에 동의하며, 유산을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 인프라는 단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현장 관리자, 해설사, 최전선 인력은 필요한 역량과 자원과 함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녀는 "관리청은 이동 제한이 있는 방문객, 고령 방문객 및 지원이 필요한 기타 집단의 요구에 대해 현장 관리자, 해설사 및 최전선 현장 인력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핵심은 존중에 기반한 의사소통, 안전한 지원, 인내, 존엄성에 있다. 목표는 방문객이 의존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쪽
미니어처를 통해 플라오산 사원의 구조를 배우고 있는 리다 아말리아

오른쪽
유네스코 워크샵 참가자들

© UNESCO/ Ars Management


unesco
Inclusion Workshop
& Pilot Activity
CO-CREATING
INCLUSIVE
INTERPRETATION
WITH TEMAN NETRA
Inclusion
Accessibility
Heritage
January 2023

필요시 전문적이고 배려 깊은 방식으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례로, 족자카르타 워크숍 참가자들은 사람 중심 접근방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치바는 "청년 가이드가 제공한 맞춤형 지원이 참가자의 안전감을 높이고 방문 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고 설명한다. 참가자들은 유산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명확성, 편안함, 자신감"을 느꼈다고 알렸다.

포용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다. 그녀는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논의와 해석 접근법 개발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참가자들이 자신의 필요, 선호, 기대를 유산 전문가에게 보다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수동적 자문에서 능동적 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다.

아코스타는 유산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인권 기구 및 옹호 단체와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재현에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다른 문화기관 및 유산지와 방법론과 교훈을 공유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문화유산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유산 보존과 포용 증진은 별개의 사명이 아니다. 이를 결합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적실성 있고, 보다 인간 중심적이며, 보다 지속가능한 기관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테르 역시 이에 강력히 동의하며, "보존과 포용은 가우디의 깨진 타일 모자이크인 트렝카디스와 같다.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는 모두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아래
마추픽추(페루)의 휠체어 접근 가능 안내판



© Beto Santillan/ Shutterstock.com

아카이브

세계유산리뷰 제 7호, 1998년 1월

"우리는 개별 유산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유지관리를 통해 유산을 보존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 UNESCO

세계유산리뷰 제 7호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순간부터 유산의 보존관리가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탈리아 베수비오산 일대의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고고학 유적은 유네스코 등재로 연구가 활성화되고 지식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국 그리니치 해양지구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아그라의 붉은 요새 정원, 델리 후마윤 묘의 정원 등 인도 무굴 정원의 보존 사례는 정원 고고학과 지역적 필요 사이를 조율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었다.

제 7호는 파나마의 사례를 비롯해 많은 유적에서 생물다양성과 지역 문화 그리고 도시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바이칼호(러시아 연합)는 의례와 일상이 모두 성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랴트족과 에벤키족의 정신적인 전통을 보여주었다. 라스 메둘라스(스페인)는 로마시대 수력 채광의 예를 통해 인간 창의력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고, 케레타로(멕시코)는 토착민의 전통과 스페인 도시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보습을 보여주었다.



유네스코 지정 지역 속 사람과 자연

세계적 및 지역적 기여

175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는 2,260곳 이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최초의 전 지구적 평가를 확인하십시오. 이는 현재까지 진행된 가장 포괄적인 분석으로, 유네스코 지정 지역이 사람과 자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이들이 직면한 점점 증가하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MENORCA
illes balears

unesco
Talayotic Menorca
World Heritage Site since 2023

광고

우리의 정체성 지키기
탈라요틱 메노르카
세계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



www.menorcatalayotica.info

TALAYOTIC MENORCA
World Heritage

CONSELL INSULAR DE MENORCA
DEPARTAMENT DE CULTURA, EDUCACIÓ, JOVENTUT I ESPORTS

광고

부산대학교
문화유산에 대한 80년의 헌신

80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초 종합 국립대 부산대학교가 한국의 문화유산 보호와 세계유산 연구에 기여합니다

2026 부산대학교 80주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1946년 5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으로 설립된 부산대학교는 2026년 개교 80주년을 맞아 한국 최고의 국립대 위상에 빛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대한 여정과 함께하며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 온 올곧고 참된 대학입니다. QS, THE 등 각종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고, APRU(환태평양대학협회) 등 세계 주요 대학들과의 교류와 우수한 연구성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인류 삶의 진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 & 고고학과

부산대학교 박물관은 1955년 한국전쟁 직후 설립되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인류 공동 의 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56년 9월에는 부산으로 피난해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요 문화유산 18,833점을 이관받아 약 4년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으로써, 전후 국가 재건기 동안 '국보 피난처'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한반도 남부 고대 가야왕국 고분의 발굴조사를 통해 그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 해당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는 한국에서 가장 폭넓은 고고학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미래 고고학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공별 세계대학 순위에서 한국 국가거점 국립대학 중 1위를 기록하며, 박물관과 함께 문화유산의 조사·연구·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과 고고학과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박물관 컬렉션



발굴현장





역사적인 제다: 유산 보존, 유산의 부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문화부 후원으로 2018년에 '제다 역사 지구 프로그램'이 출범하고, 이어 2021년에 '제다 역사 지구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됨에 따라, 역사적인 제다를 보존하고 되살리려는 왕국의 의지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유산 건축물의 세심한 복원, 문화 공간의 활성화, 그리고 이 지역의 도시적 정체성 재구성을 통해 역사적 제다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메카로 향하는 관문'인 역사적인 제다(Historic Jeddah)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화 및 건축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이 지역은 2.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의 교차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제다 시는 홍해 연안의 주요 인간 정착지였습니다. 양쪽 해안에는 다른 도시들도 존재했으며, 이들은 복잡하고 지속적인 무역 및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제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다(Jeddah)는 바브 알-분트(Bab Al-Bunt)를 통해 바다로 도착하는 무슬림 순례자들을 위한 메카(Makkah)의 항구로서의 역할 덕분에 이들 도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도시는 메카로 향하는 순례자들의 관문이자, 홍해의 주요 무역항이며, 인도양 무역로와 히자즈 지역 및 그 너머를 연결하는 핵심 상업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다는 광범위한 지리적·문화적 교류 네트워크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서기 15세기 이후, 역사적인 제다는 메카로 향하는 순례자들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및 더 넓은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바다를 통해 도착하는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홍해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 중 하나였던 이 지역은 다양한 문화, 전통, 언어, 상업이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이 되어, 이 도시의 독특한 정체성과 특성을 형성했습니다. 역사적인 제다를 오가는 순례자와 상인들의 끊임없는 이동은 이 지역의 건축적, 사회적, 상업적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지역을 하즈 순례 여정과 연결된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역할은 오늘날 제다의 지속적인 문화적, 건축적 중요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역사적인 제다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 더 넓은 홍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 명소 중 하나로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보존 및 문화적 재생을 위한 국가적 우선순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 및 재생 노력의 성공은 지역 사회와 문화유산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 장인, 공예가, 기업가 및 기업들은 이 지속적인 재생 과정에서 여전히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 지역의 유산이 미래 세대를 위해 살아 숨 쉬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제다가 역사적 구조를 보존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이 지향하는 목표를 계속해서 구현해 나가도록 보장합니다. 이 지역은 수세기 동안 이 지역 전역에서 이루어진 인간적 가치, 건축, 건축 기술 및 무역의 교류를 반영하고 있으며, 도시 구조와 하즈 순례와 관련된 전통은 문화적 교류와 연결성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산호초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과 협력

2024년 4월, 네 번째로 전 세계적인 산호 백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82개국과 전 세계 산호초의 84%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포함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가 전 세계 산호초, 생태계 및 세계유산지에 계속해서 가하는 중대한 위협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배출량 감축만으로는 전 세계의 산호초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산호초가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호주의 산호초 복원 및 적응 프로그램(RRAP)은 중요한 생태계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저항하고, 이에 적응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 노력 중 하나입니다.

RRAP는 2020년에 시작되었으며, 호주 정부의 리프 트러스트(Reef Trust)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재단(Great Barrier Reef Foundation)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00명 이상의 호주 및 해외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산호초가 미래에도 더 큰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 세계의 산호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RRAP는 일련의 개입 방안의 개발 및 실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특정 구역을 냉각하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조치, 산호 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 그리고 손상되고 황폐화된 산호초의 자연적 복원을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RRAP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하위 프로그램 중 하나는 '산호 강화 및 치료'로, 연구자들은 산호의 내열성, 백화 현상 저항성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해양과학연구소(AIMS)와 서던 크로스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전역의 산호들이 열 내성과 관련된 중요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RAP 연구진은 산호가 환경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러한 유전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통제된 환경에서 산호 양식을 통해 열에 더 잘 견디는 산호를 대량으로 키운 뒤, 이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로 다시 이식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열에 강한 어린 산호의 성공적인 정착, 생존 및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저비용 장치도 개발되었습니다.

시범 배치 프로그램(PDP) — 산호초 복원 기술을 연구 단계에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의 대규모 실제 현장 적용 단계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PDP는 RRAP의 운영 시험 구성 요소로, 호주 정부의 리프 트러스트(Reef Trust)가 자금을 지원하고 AIMS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로서, 현재 PDP를 통해 두 가지 RRAP 개입 방안, 즉 산호 유생 방류와 양식 산호 이식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PDP의 일환으로 산호초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 복원 실험 중 하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AIMS가 주도하고 해양 산업 파트너 및 원주민 레인저들이 수행했습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대규모 산란이 일어나는 동안, 여러 산호초에서 산호 알을 채취하여 수족관에서 여러 산호 종을 번식시켜 수백만 마리의 건강하고 어린 산호를 키웠습니다. 이 산호들은 케언즈, 포트 더글라스, 그리고 더 남쪽의 케펠 제도 주변에 있는 시험용 산호초에 이식되었습니다.

Images left to right: ©AIMS photographers Gus Burrows, Saskia Jurriaans, Marie Roman.





이후 AIMS 연구진은 산호의 생존, 성장, 그리고 백화 현상이나 조류와의 경쟁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대규모 복원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복원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원주민 레인저들은 워파부라 바다 지역(Woppaburra Sea Country)의 보트와 로슬린 베이(Rosslyn Bay)의 교실에서 활동하며, 산호 산란을 수집하고, 산호 유생을 키우며, 어린 산호를 산호초 지역으로 다시 방류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원주민 레인저들의 이러한 참여는 AIMS가 주도하고 원주민 레인저들에게 산호초 복원 교육을 제공하는 '인디지너스 퓨처스(Indigenous Futures)'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바다의 땅'에서 복원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RAP는 전통 소유주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운영되며, 그들의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식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생물물리학적 특징을 넘어 문화적 경관으로 바라보는 것의 이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산호초 복원 활동 지원

호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RRAP는 국제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다른 국가들의 산호초 복원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프시드(ReefSeed)는 RRAP에서 개발된 과학 및 기술을 활용하는 휴대용 자급자족형 산호 양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해운 컨테이너에 실어 외딴 지역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산호초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마리의 산호 유생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리프시드는 몰디브에서 성공적인 실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AIMS 연구원들의 지원 하에, 몰디브 해양연구소의 생물학자들은 리프시드 장치 내에서 산호 알과 정자 덩어리를 수정시켜 산호 유생으로 키웠습니다. 이후 유생들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특수 설계된 세라믹 장치를 통해 산호초로 이식되었습니다.

RRAP와 PDP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전 세계 산호초가 미래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RRAP는 주요 연구 기관, 정부 및 파트너들의 협력을 통해 운영됩니다. 여기에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재단(Great Barrier Reef Foundation), AIMS, CSIRO, 제임스 쿡 대학교(James Cook University), 퀸즐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서던 크로스 대학교(Southern Cross University), 퀸즐랜드 공과대학교(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gbrrestoration.org에서 확인하세요

Australian Government

REEF TRUST

AUSTRALIAN INSTITUTE OF MARINE SCIENCE

Great Barrier Reef Foundation



변화를 이끈 두 지도자.
하나의 강력한 신념.

1930년 인도에서 모한다스 K. 간디가 주도한 단디 소금 행진 이후 35년이 지나, 세계는 1965년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주도한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을 통해 비폭력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인도 독립 운동의 성공은 킹과 다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도자들이 인도를 방문하여 간디의 비폭력 저항인 '사티아그라하(진리의 힘)'를 연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1935년 이러한 지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마하트마는 흑인 신학자 하워드 서먼에게 "비폭력의 순수한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어쩌면 흑인들을 통해서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1959년 인도 아대륙을 가로지르는 영적 여정을 마친 킹은 "인도를 떠나며, 비폭력 저항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티아그라하의 다른 추종자들도 킹 목사와 함께 '미국 민권 트레일'에 소개된 장소들에서 비폭력 시위에 동참했으며, 오늘날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역사를 만든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관광객으로 갈지 모르지만, 인도에는 순례자로 찾아갑니다."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UNITED STATES
CIVIL RIGHTS TRAIL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에베네저 (Ebenezer) 침례교회

운동 교회들은 아슈람처럼 기능하며, 시민권 운동가들에게 비폭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애틀랜타의 에베네저 침례교회(Ebenezer Baptist Church)에 출석하던 킹은 1936년에 간디를 만난 적이 있는 모어하우스 대학(Morehouse College)의 벤자민 메이즈(Benjamin Mays) 총장과, 같은 모어하우스 대학 동문인 하워드 서먼(Howard Thurman)을 통해 보스턴 대학(Boston University)에서 강화된 새로운 흑인 신학을 배웠습니다.



덱스터 애비뉴 킹 기념 침례교회

1948년 인도에서 사티아그라하를 공부한 후, 베이야드 러스틴은 미국으로 돌아와 화해의 형제회(Fellowship of Reconciliation)에서 활동했습니다. 러스틴은 간디의 제자였던 글렌 스마일리와 함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자원봉사자들에게 비폭력 훈련을 시켰는데, 여기에는 덱스터 애비뉴 침례교회의 강단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킹 목사도 포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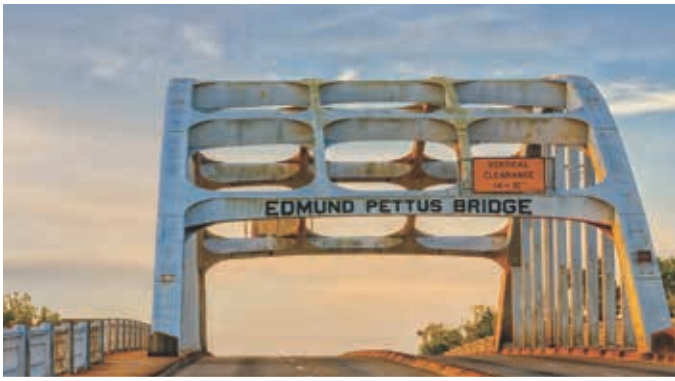
애니스턴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

하워드 서먼의 제자이자, 점심 식당 카운터에서 '시트인' 전술을 최초로 도입한 '인종평등회의(Congress of Racial Equality)'의 공동 창립자인 제임스 파머는 1961년 '프리덤 라이드'를 조직하여, 흑인과 백인 민권 운동가들을 모집해 인종 통합 방식으로 주간 고속버스 좌석에 앉게 했습니다. 앨라배마주 애니스턴에서 인종 분리를 옹호하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비폭력 시위자들이 탄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그 버스를 공격했습니다.



에드먼드 페투스 다리

1965년 유권자 등록을 둘러싼 시위는 시골 마을 셀마에서 주 수도 몽고메리까지 비폭력 행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1930년 인도의 '소금 행진' 사티아그라하를 연상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피의 일요일'에 앨라배마 당국이 에드먼드 페투스 다리에서 흑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연방 당국이 개입하여 킹 목사가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의 행진을 이끌도록 승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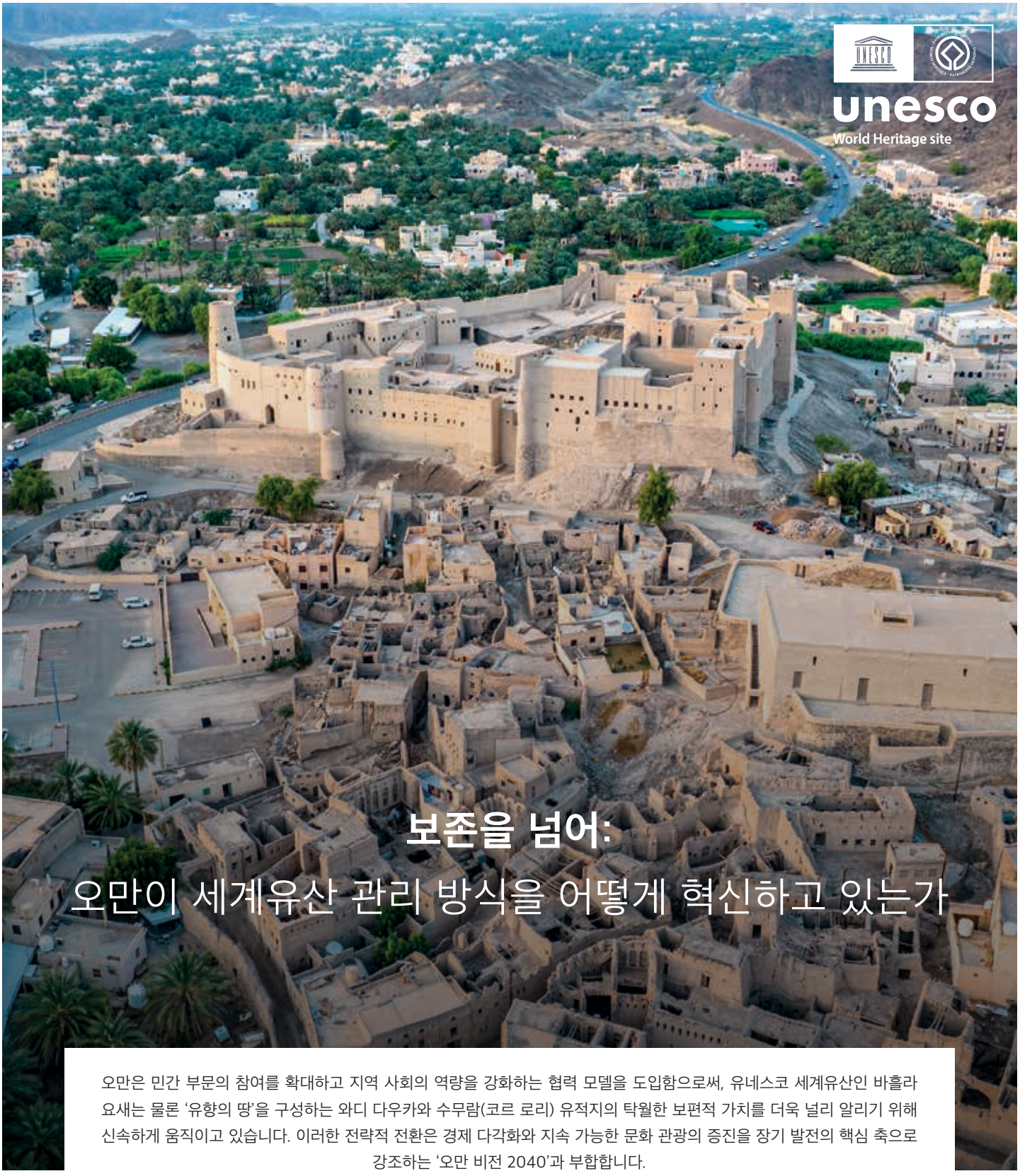


로레인 모텔

한때 인도 나그푸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사티아그라하를 배웠던 제임스 로슨은 미국으로 돌아와 1968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발생한 위생 노동자 파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킹 목사가 워싱턴 D.C.에서 계획된 '가난한 사람들의 캠페인'을 앞두고 이 시위에 동참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비폭력 행진이 시작되기 전날 밤, 킹 목사가 로레인 모텔의 발코니에 서 있던 중 암살자에게 총격을 받았습니다.



광고



보존을 넘어:
오만이 세계유산 관리 방식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가

오만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바흘라 요새는 물론 '유향의 땅'을 구성하는 와디 다우카와 수무람(코르 로리) 유적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경제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의 증진을 장기 발전의 핵심 축으로 강조하는 '오만 비전 2040'과 부합합니다.

وزارة التراث والسياحة
Ministry of Heritage and Tourism
Sultanate of Oman سلطنة عمان
www.mnt.gov.om



현재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들은 유적지의 역사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전통적인 보존 중심 관리 방식에서 투자 파트너십, 향상된 방문객 서비스, 풍요로운 문화 체험을 기반으로 한 보다 역동적이고 운영 중심의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만의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1987년 등재)인 바흘라 요새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경제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관리 및 운영이 현지 민간 파트너십에 위임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 사회를 유적지 관련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주변 지역의 문화적·경제적 활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 모델은 유형 및 무형 유산을 보존하고 선보이는 연중 문화 행사, 전시회, 지역 사회 기반 활동을 통해 전통 공예와 민속 예술을 지원합니다. 전문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이 유산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문화 관광지로서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문화적 진정성 보호를 조화시킨 균형 잡힌 틀을 따르며, 바흘라 요새가 지식,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유향의 땅" 세계유산(2000년 등재)의 주요 유적지 중 하나인 와디 다우카(Wadi Dawkah)는 최근 몇 년간 선진적인 민관 협력에 힘입어 관리 방식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는 오만의 전통 향수 제조 기법에 뿌리를 둔 럭셔리 향수 브랜드 아모우아지(Amouage)가 있으며, 이 브랜드는 계곡의 환경 보전, 경제 발전,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우아지는 문화유산관광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 지역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보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수천 그루의 유향 묘목 재배, 보호 울타리 확장, 그리고 1,200그루 이상의 고대 보스웰리아 사크라(Boswellia sacra) 나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관개 시스템 현대화 등이 포함됩니다. 생태계 보전을 넘어, 이 회사는 심기 및 수확부터 유향 기반 제품의 개발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유향 생산 주기의 모든 단계에 지역 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계곡의 문화적 연속성을 모두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우아지는 전통 지식 체계를 되살리는 시범 수확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오만 환경 협회(Environment Society of Oman)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기관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플랫폼과 과학적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연구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회사는 엄선된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현대적인 방문자 센터와 새로운 서비스 시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와디 다우카를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오만의 고대 유향 유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하는 접근 방식은 지역 사회가 더 이상 유산 현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그 관리 및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창출합니다. 동시에, 민간 부문의 참여는 혁신을 도입하고 통합된 관광 상품의 창출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유산지는 단순한 방문 장소에서 지역 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활기찬 문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진: 1. 바흘라 요새 세계유산; 2. 전통 도예 공방; 3. 유향의 땅 세계유산; 4. 유향 수확.

광고



알타미라와 코스타 케브라다:
인류를 위한 공동의 유산

